

〈대회사〉

羅州鄭氏 宗親 和合과 團結로 다시 한 번 찬란하게 빛나는 繁榮의 家門을 만들어 갑시다



羅州鄭氏大宗會長

鄭 哲 俊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대 대총회장 정철준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온 대지에 가득한 오늘 제62회 나주정씨대총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로패와 장한 어머니, 효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전 종친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정광훈鄭光勳 전임 회장님께서서는 대총회 회장직을 25대부터 27대까지 3대에 걸쳐서 10년 가까이 역임해 오시면서 설재장학회의 재원 및 수상자의 확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뿌리교육을 실시하셨고,

『자랑스런 羅鄭人』 賞을 제정하여 인재발굴과 후진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축보를 개발하는 등 우리 나주정씨의 자긍심을 높이고 오늘의 발전된 대총회가 있게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종친 여러분! 정광훈 전임회장님과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설재장학회 장학금을 수상하신 장학생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수상에 그치지 말고 원대한 뜻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느 한 분야에서 반드시 나라에 필요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우리 나주정씨종문羅州鄭氏宗門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장래의 희망과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문중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큰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고 지속하십시오. 성공의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우리 나주정씨는 고려 중엽부터 15대성 명문가로 많은 충효열사忠孝烈士와 명현달사明賢達士들이 이어져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해 온 전통 가문으로 타성他姓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 종친 간에 화합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모아 훌륭한 인재를 키워 조상님들의 빛나는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제2의 나주정씨羅州鄭氏 번영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온고지신溫故知新的 자세로 조상님들의 훌륭한 업적業績을 찾아내어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끝나고 오후에는 나주에서 설단제향設壇祭享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송조崇祖 정신을 키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가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물론 진수성찬을 준비하여 제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예를 갖춘 후 우리 종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자리 즉 대화도 나누고 또 자녀들도 함께 동참

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상님의 훌륭했던 업적도 교육하고 실질적인 단합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그 개선의 방향을 발전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경비를 절약하고 종친 여러분께서 내어주시는 성금들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후손들의 앞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푼 두푼 장학기금을 축적하여 더 많은 후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장학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총회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변의 협찬을 확대하여 최소한 내년부터는 현재 6·7명의 장학금 혜택을 배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종친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종친들께도 많이 알리어 우리 나주정씨 종친宗親이면 누구라도 장학금을 신청하여 선의의 경쟁 아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종친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종친 가족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공부는 잘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나주정씨 일가가 없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훌륭한 우리 후손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나주정씨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어느 종중宗中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각자의 의견도 개진하며 대화의 방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였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의지하는 관계를 맺어 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은 꼭 필요하며 가장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할아버지 아래 태어난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어느 곳에서든지 종친宗親을 만나면 따뜻하고 정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숙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소중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우리 10만 모든 종친이 행복한 삶을 누리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 종친들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총회에 참여하여 각 계파系派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서로가 양보하고 칭찬하는 미덕의 자세로 우리 나주정씨의 중심이 되는 종친회로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우리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총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혹여 불편했거나 서운한 점은 없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과 사랑을 주시기 바라며 종친님들의 사업에 번영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9

羅州鄭氏大宗會 會長 鄭哲俊

〈환영사〉

화합和合하는 축제祝祭로



호남종친회 회장
대중회발전연구위원

鄭 遇 華

존경^{尊敬}하고 사랑하는 종친^{宗親}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萬物}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공사 간 다망^{多忙}하심에도 경향 각지에서 제62회 대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나 고령에도 애종^{愛宗}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자리를 빛내주신 고문^{顧問}님과 자문위원^{諮問委員}님께 더욱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나주정씨의 천년 세거지^{世居地} 호남의 3대 명촌 금안동에서 대중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이곳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꽃향기는 백리^{百里}를 가고 주향천리^{酒香千里}요 인향만리^{人香萬里}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가^{一家}의 인연은 소중하고 영원한 인향입니다. 열정으로 헌신봉사하신 전임 정광훈 회장님, 신임 정철준 회장님과 함께 가슴 벅차고 화기에애하게 대중회를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 나갑시다.

오늘 중회발전에 10여 년 동안 기여^{寄與}하신 정광훈 전임회장님과 함께 수상하시는 유공자님, 그동안 중회 발전에 기여하신 열정과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 종친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효행^{孝行}과 효부^{孝婦}의 상^賞을 받으신 수상자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인내와 효행에 조상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시고 여생에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재雪齋 장학생獎學生으로 선발된 수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치왕도의 대사상가요 학자이신 설재공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자긍심自矜心을 갖고 정진하여 여러분의 꿈이 영글고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문과 우리 문중을 빛내주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세계 속에 한국을 우뚝 세웠습니다.

인공지능의 실용화와 정보화 물결로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일자리는 30% 이상 사라지는 변화로 앞으로는 한 직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를 옮겨가며 살아가는 창조적 물결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결정하는 핵심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곧 목표이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혼을 담은 정성과 노력으로 정진하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대한 이 자리를 위하여 애써주신 대종회 회장님과 임원任員 여러분, 우리 문중의 대소사에 열정으로 헌신봉사하신 종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나주정씨가 오랜 동안 터를 닦고 살아온 나주 금안동에서 설단 제향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천년 세거지에 흐르는 조상의 얼과 향취를 가슴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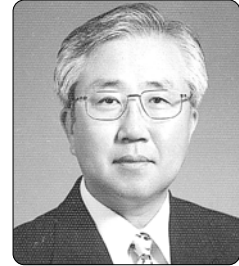
먼 길 오신 종친님 여러분, 따뜻한 정성을 담아 환영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편안하게 귀가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9일

나주정씨호남종친회 회장 鄭遇華

〈격려사〉

錦城山에 새봄이 왔습니다



雪齋獎學會 理事長
直前 羅州鄭氏大宗會長

鄭 光 勳

오늘 이 뜻 깊은 제62회 대종회大宗會 정기총회定期總會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대종회大宗會가 있기까지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헌신하신 나주정문羅州鄭門의 국내외 10만 일가와 대종회大宗會 역대歷代 회장會長님과 고문顧問님, 발전연구위원장發展研究委員長님과 이사理事님들, 문중門中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종회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28대 대종회장大宗會長으로 취임하신 정철준鄭哲俊 회장會長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정철준鄭哲俊 회장會長님은 호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알려진 명품 아파트 브랜드 아델리움의 한국건설주식회사 회장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기업가를 대종회장大宗會長님으로 모시게 된 것은 문중門中の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나주정문羅州鄭門에 봄이 온 것이요, 나주정씨의 고향인 금성산錦城山에 희망의 봄, 새봄이 온 것입니다.

나주羅州의 서북쪽 능선을 구성하고 있는 금성산錦城山은 예부터 최고의 명당으로

소문났으며, 그 남서쪽으로 설재雪齋 문정공文靖公의 탄생지인 시중동侍中洞이 있고, 사향시思鄉詩의 해동남유금성산海東南有錦城山, 산하오려초수간山下吾廬草數間的 마을인 호남湖南의 3대 명촌名村 금안동金鞍洞이 북쪽으로 안겨 있습니다.

금성산錦城山은 높이 451m, 4개 봉우리로 이루어졌으며, 동쪽은 노적봉露積峰, 서쪽은 오도봉悟道峰, 남쪽은 다복봉多福峰, 북쪽은 정녕봉定寧峰입니다. 그 북쪽 정녕봉定寧峰이 문정공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충렬왕 3년(1277)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가 되고 정녕공定寧公에 봉해지셨을 즈음, 공께서 “충렬왕에게 건의하여 금성산錦城山에 정녕공定寧公의 작호爵號를 내리고 나주 녹미祿米 중에서 5석을 사당에 주었고 또 봄, 가을에 왕이 향과 축문, 돈, 비단을 내려 제사 지내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나주정씨羅州鄭氏의 뿌리는 금성산錦城山이며, 최고봉인 정녕봉定寧峰은 공께서 충렬왕께 건의하여 공과 같은 정녕공定寧公의 작호爵號를 내리셨으며, 그 품안에 시중동侍中洞과 금안동金鞍洞이 있으니, 금성산錦城山은 우리 정신과 유전자와 삶 속에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우리 나주정문羅州鄭門의 역사歷史와 문제問題와 답답을 금성산錦城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到來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不足하고 미흡未洽한 제가 25대代, 26대代, 27대代 대종회장大宗會長으로서 중임重任을 대과大過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종친宗親 여러분과 선영先塋의 음덕蔭德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대종회장大宗會長 혼자 힘으로는 절대 대종회大宗會의 대소사大小事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 “우리는 일가一家”임을 다지시고, 새로 취임하신 정철준鄭哲俊 대종회장大宗會長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만

이 목표로 한 선물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정문羅州鄭門이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 위상位相을 지켜나가면서 한층 더 비약飛躍하고 굴기崛起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대총회大宗會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공로功勞나 효부孝婦 그리고 설재장학금雪齋獎學金の 수혜자受惠者들에게 주어지는 상賞은 부모父母님을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으로 봉양奉養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조효친崇祖孝親 정신精神이 투철透徹한 분께 드리는 효행상孝行賞과 종친회宗親會 발전發展과 종친화합宗親和合에 기여寄與한 공로상功勞賞과 그리고 우리 정문鄭門의 발전發展은 물론, 사회社會와 국가발전國家發展에 크게 기여寄與한 종친에게 드리는 상賞으로서 그 어느 상賞보다도 일생일대一生一代에 가장 자랑스러운 상賞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설재장학생雪齋獎學生들의 장학금獎學金은 고려재상高麗宰相 설재雪齋 문정공文靖公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상賞이니 만큼 더욱 값지게 여기어, 2017년 종보宗報에 소감과 삶의 따뜻한 이야기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게재掲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원숭이 해, 병신년丙申年입니다.

병신년丙申年에는 마상봉후馬上封侯라는 말을 덕담德談으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원래 말 위馬上의 원숭이猴와 벌蜂이라는 말인데, 한자의 발음이 제후諸侯에 봉封해져서 말 위馬上에 올라탔다는 뜻의 마상봉후馬上封侯와 같아 중국에서 승진昇進과 복福을 기원祈願하는 의미意味에서 도자기나 다른 기념품紀念品을 만들어 선물贈物로 주고받았던 은유적隱喻的인 표현表現이라 합니다.

이 말의 뜻대로 우리 문중門中과 종친 여러분의 2016년이 금방 제후諸侯에 봉封해지는 마상봉후馬上封侯의 해가 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목和睦하고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분위기雰圍氣 속에서 고견顧見과 정담情談을 나누시고, 종친宗親 여러분의 가정家庭에 행복幸福이 함께하시길 기원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에서 보존까지



대중회 고문
호남중친회 고문
대중회발전연구지도위원

鄭 炳 淶

실록과 『조선왕조실록』

실록이란 말이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한 임금이 재위한 동안의 정령政令과 그 밖의 모든 사실을 적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그 단어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기록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으니, 굳이 전통시대의 국왕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일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물을 두고 실록이라 붙여도 하지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 사용된 실록의 의미는 주로 군왕과 국가에 대한 역사 기록물과 관계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실록이 처음 편찬된 것은 중국 남북조시대 열국 중 하나였던 양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하늘 천, 따 지”로 시작하는 천자문의 저자 주흥사周興嗣라는 사람이 양나라 황제의 실록 두 권을 편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나라 때의 실록은 모든 군왕을 대상으로 편찬한 것은 아니며, 그 후 남북조시대 혼란기가 수 문제에 의해 수습되고, 당나라가 천하를 이어받은 후부터 임금마다 실록을 편찬했다. 이것이 모범이 되어 그 이후의 역대 왕조는 대대로 실록을 편찬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잦은 외침과 국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려의 실록은 현재 남아 있지 못하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명나라와 청나라 실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총 1,983권 888책의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 역대 임금의 태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임금인 순종까지 모두 27명이다. 물론 보위에 오르지 못한 이를 후대에 추존한 임금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실제 통치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록이 편찬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의 27명에 대한 실록이 편찬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고종과 순종은 일제강점기에 재위하던 분이라, 이미 춘추관이 폐지되어 없었고, 따라서 일제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실록으로 넣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조선시대에 편찬된 실록이라 하면, 당연히 25대 임금인 철종까지 472년간의 실록 기록을 말한다.

이러한 실록은 반드시 임금이 죽고 난 후에 편찬되어 특별히 마련된 몇 군데 사고 史庫와 궐내의 춘추관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총 1,983권 888책의 방대한 양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왕조를 격하하여 흔히 이조李朝라고 불렀고, 이에 따라 실록 또한 이조실록이라 불렀다.

해방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55년부터 3년간에 걸쳐 태백산본을 저본底本으로 총 48책으로 축쇄 영인하여 국내외에 널리 배포했다. 이때 붙여진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인데, 조선시대의 국호와 국제國體에 의해 붙인 이름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이란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붙인 것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 명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에 유래 없는 실록 편찬 전통

『조선왕조실록』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따진다면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또 사료적 가치를 따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비록 부분적으로 곡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인간이 역사를 쓰고 인간이 역사를 평가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조선 후기 사료들 중에는 실록 외에도 1차적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비교·검토할 수도 있고, 또 결과를 토대로 사료적 가치를 판단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 실록은 비교해 볼 수 있는 1차적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사관들이 실록을 편찬할 때 그들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론은 후기에 비하면 전기에는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흑평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조선 전기 실록은 사실을 원형 그대로 전달하고 보존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었다고 보인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나 『동국통감』 등도 관찬사서이기는 하지만 열람이 자유로웠던 것에 비해 실록은 거의 당대사에 준하는 것이기에 비장秘藏되어 함부로 볼 수가 없었다. 이는 사초를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이치와 같은 것이다.

물론 고비를 넘겨야 할 정치상황에 직면하여 소수의 권신權臣들이 자신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사초나 시정기의 일부를 수정했던 사실도 있다. 그러나 추리할 수 있는 문구나 수정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남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료나 역사라는 것이 완전무결하게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이상 남긴 자의 성향에 따라 편견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론에 의한 정치가 활발했던 조선 중기의 실록에 입각한 사론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공론이란 것 자체가 일부 지식인 내지는 지배층의 의논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 유의한다면, 특히 조선 후기의 실록 자료들에서 당색에 의해 윤색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더 진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초기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보존하다는 원칙이 점차 변질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동시에 역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석이었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실록이 왕

과 지배층만의 기록이었다는 혹평도 있기는 하나, 이는 왕조시대의 한계성이지만 실록의 한계성은 아닌 것이다. 하여튼 실록 편찬의 전통이 고려5백년 이어 조선조 5백년 까지 장장 천 년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 모두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겠다.

시골 선비들이 지켜낸 실록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들이 물밀 듯이 밀어닥쳐 수도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친 신립 장군마저 패하자 성주와 충주 사고에 보관하던 실록도 병화에 불타버렸고, 선조는 한양을 포기한 채 의주를 향해 몽진 길에 올랐으니, 춘추관의 실록각에 보관된 실록마저 훼손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였다.

그러나 다행히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전란을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전란 수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을 온전하게 지켜 낼 수 있었다는 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태인에 사는 시골 선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킨 덕분이었다. 당시 안의(安義)·손홍록(孫弘祿) 등 태인에 살고 있던 선비들은 왜적이 쳐들어온 그 해 6월 왜적이 금산 지방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전주로 달려가 실록과 태조 영정을 보관하고 있던 경기전(慶基殿) 참봉 오희길(吳希吉)에게 급보를 전했다.

마침 전주 사고에는 태조부터 명종대까지 13대에 걸친 실록 804권과 태조 영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실록과 영정을 정읍에 있는 내장산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 후 이듬해 7월 조정에 실록을 인계할 때까지 14개월 동안 안의와 손홍록이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밤낮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조선 전기의 방대한 실록 분량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했으니,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임란으로 불탄 실록을 복구

조선 조정에서는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진 이듬해 7월 안의와 손홍록이 지켜낸 실록을 인계받아 해주로 옮겼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어 강화도로 옮겼다가 또 다시 묘향산으로 옮기는 등 부산을 떠는 동안 전란이 수습되었다.

전쟁은 끝났으나 실록이 1부만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선조 37년 실록인출청(實錄印出廳)을 열고 실록의 재인쇄 작업을 시작했고, 선조 39년에 가서 3부를 더 간행할 수 있었다. 당시 실록 인출청의 조직과 참여자 명단인 ‘실록인출청제명기(實錄印出廳題名記)’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그 당시 전란 복구사업은 민생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였겠지만, 실록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논리만 따지는 오늘의 어설픈 자본주의 국가가 문화 사업에 들이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실록 복구와 같은 흥내라도 낼 수 있다면, 우리도 문화대국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로써 실록은 안의와 손홍록이 지켜냈던 원본과 새로 간행한 3부, 그리고 간행 당시 최종 교정본을 제본한 교정본 등 5부가 되었다. 1부는 종전과 같이 춘추관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란의 화를 막을 수 있는 깊은 산중에다 보관했는데, 강화도 마니산, 봉화에 있는 태백산, 영변에 있는 묘향산, 평창에 있는 오대산 사고가 그것이다. 이때부터 그 이후 편찬한 실록은 5대 사고에 보관했으나,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으로 인해 춘추관에 보관했던 실록이 소실되어 4부만 남게 되었다.

이어 인조 11년(1633), 청나라와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자 묘향산 사고를 남쪽 무주에 있는 적상산으로 이전했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 마니산 실록이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이는 후에 현종 때 보수하였다. 그 후 마니산 실록을 정족산으로 옮겼고, 인조 이후에 편찬된 실록은 4부씩만 인쇄하여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에 각각 보관했다가 일제 침략기를 맞이하였다.

일제의 만행과 해방 후 실록 보급

강화도조약으로 본격적인 침략행위를 일삼던 일본은 1910년 드디어 한국을 강제로 일본 식민지로 만들고 말았다. 이리하여 실록 보관 문제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정족산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과 태백산 실록은 조선총독부가 갖고 와서 학무국에 이관시키고, 적상산 실록은 창덕궁 내에 있던 장서각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오대산 실록은 일본에 있는 동경제국대학으로 실고 가 보관하다가 관동대지진 때 거의 타버리고, 남아 있던 약간만 서울대학교 전신이던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왔다.

192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이관되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는데, 그로 인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오다가 규장각이 도서관에서 독립했고, 또 총무처에서 관장하는 정부기록보관소가 생기면서 정족산본은 규장각에, 태백산본은 정부기록보관소에 각각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창덕궁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던 적상산본은 해방 후 도난사건으로 여러 권이 분실되었고,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 갔을 당시 행방불명이 된 채 서울 수복이 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후 학계에 실록 보급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태백산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축쇄(縮刷) 영인(影印)했다. 이는 국학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전까지는 실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 사료의 공유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록이 영인 보급되고 나서 조선시대에 관한 원사료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관한 논문의 질과 양에서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오늘날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실록의 국역사업과 CD롬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실록에 담긴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

다. 실록을 영인하여 보급한 것은 독자층이 매우 한정된 것이고, 일부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어려운 한문이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난해한 문장을 만났을 때 곤혹스러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록 국역이 완결되고 또 컴퓨터로 실록을 볼 수 있게 된 지금은 독자층을 일반 대중에게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 조상이 어떤 관직을 거쳤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과 같은 조선시대 관심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보화 사회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모르겠다.

전근대 사회는 인쇄술이나 제지술이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교통과 통신의 미비로 지식을 일부가 독점하는 폐쇄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맞춰 『조선왕조실록』도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것이 분명하다.

통쾌한 발견



전대중회발전연구위원장

鄭 吉 會

다음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책에서 설재공雪齋公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때는 2014년 12월 1일이었다. 나는 당질堂姪 우화遇華와 들어서 계당선생桂堂先生(辛大圭氏)을 선생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만남 이유는 설재서원雪齋書院 보수를 위해 여러 차례 설재서원 신실神室에 다녀왔는데, 오늘도 신실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계당선생이 『龍飛御天歌』 책을 보이면서 설재공 등재登載 사실을 찾아서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책에서 직접 한번 살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책을 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龍飛御天歌』 第八十二章에서

인견소유 어좌거기 경유지심 운여하이
引見小儒 御座遽起 敬儒之心 云如何已

접견노유 예모이케 우문지덕 운여하이
接見老儒 禮貌以跪 右文之德 云如何已

해석 : 작은 나라 선비를 보시고 어좌에서 일어나시니 敬儒之心이 어떠하신가
늙은 선비를 보시고 예를 갖추고 꿇으시니 右文之德이 어떠하신가

여기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똑같다.

그러나 다음 설명문을 보고 우리는 무척 좋아했다. 윗글의 ‘敬儒’와 ‘右文’을 설명하면서 “‘敬儒’는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세자^{世子} 때 원나라에 갈 때 정당문학^{政堂文學} 정가신^{鄭可臣}이 배행^{陪行}하였는데 원^元의 세조^{世祖}가 정가신^{鄭可臣}을 불러서 보며 어좌^{御座}에서 벌떡 일어나 관^冠을 바르게 쓰고 맞아 ‘敬儒’의 뜻을 보였다는 고사^{故事}이다.” 라고 했으며 또 ‘右文’을 설명하면서

“‘右文’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귀양살이(고려 공양왕^{恭讓王} 때 정포은 사건으로 이색이 귀양살이를 했다)에서 돌아와서 이성계^{李成桂}를 찾아보니 이성계가 이색을 상좌^{上座}에 앉히고 꿇어앉아서 술을 권했으니 이것은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를 상좌에 앉히고 꿇어앉아 술을 권했다는 고사^{故事}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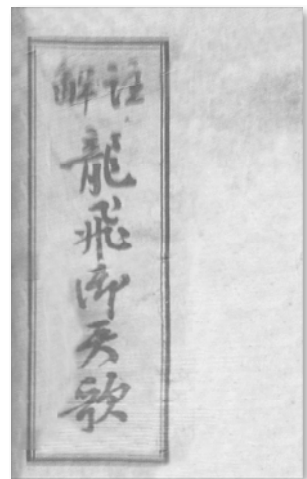
이 얼마나 통쾌한 발견^{發見}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글의 내용을 보고 우리 족보의 내용과 같아서 우리의 중시조^{中始祖}인 설재공^{雪齋公} 사실이라고 좋아했지만 타인들은 어떻게 이 글만 보고서 설재공^{雪齋公}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입증하겠느냐 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다가 오늘 바로 『龍飛御天歌』 책에서 윗글이 설재공 사실이며 아래 글은 목은 이색 선생의 글이라는 내용을 시원스럽게 확인하였다.

첨부한 사진은 우리가 『龍飛御天歌』 책에서 확인^{確認}한 사실을 나주정씨^{羅州鄭氏} 호남종친회^{湖南宗親會} 회장^{會長} 정우화^{鄭遇華}씨가 촬영하였다.

첨부

『龍飛御天歌』 책의 표지 사진

『龍飛御天歌』 제82장 글 내용 설명문



『龍飛御天歌』 表紙

聖性を 아니 믿으사, 學問이 깊으시니, 創業 規模가 머(遠)시니이다.

第八十二章

御座를 보시고, 御座에 나르시니, 敬儒之心이 었더하시니
右文의 德이 었더하시니

引見小儒, 御座邊起, 敬儒之心, 云如何已

接見老儒, 禮貌以跪, 右文之德, 云如何已

敬儒 高麗 忠宣王이 世子時에 元國에 갈새, 政堂文學 鄭可臣이 陪行하였더니, 元의 世宗가 可臣을 불러 불씨, 冠을 바로고 맞아 敬儒의 뜻을 보이다.

右文 李穡이 謫所에서 도라와서 李成桂를 慰訪하니, 成桂가 上座에 앉차고, 穡이 앉아 穡이 가니, 이것은 文人을 恭敬하는 말이다.

작은 신비를 보시고, 御座에 일어나시니, 敬儒之心이 었더하시니.

높은 신비를 보시고, 禮貌로 꿇으시니, 右文之德이 었더하시니.

第八十三章

君位를 보리라 할새, 君命을 알외오리라, 百萬우회, 金塔이 조소나
자승로 制度를 알새, 仁政을 맛도리라, 하늘우칠, 金尺이 나르시니

位曰大寶, 大命將告, 建維海上, 灑湧金塔
尺生制度, 仁政將託, 坤維天上, 灑降金尺

金塔 高麗太祖가 임금 되기전에 꿈에 바다가운데 九層 金塔위에 올라섰단, 이것이 었다.

『龍飛御天歌』 제82장 글 내용 설명문

鄭鷹字 鄭鴻字 鄭縉字 할아버지들이 人生을 걸어오신 내력



고정공 12세손

鄭 炳 鉉

본관本貫은 모두 나주羅州요,

정응鄭鷹 호號 애죽헌愛竹軒 월야면 양정리 출생, 1562-1598.

정홍鄭鴻 호號 애송헌愛松軒 월야면 양정리 출생, 1565-1598, 형제임.

정진鄭縉 호號 고정공高亭公 월야면 용월리 출생, 1551-1598. 정응鄭鷹의 7촌 조카로 선조16년 1588에 셋이서 나란히 무과武科에 등과登科함으로써 한때 온 고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성격이 한결같이 곧았으며 당쟁에 혐오를 느껴 벼슬을 버린 후 향리에 돌아와 있다가 임진왜란을 당했다.

고경명高敬命 장군이 의병義兵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국충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의병에 참여하였으나 금산전투에서 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응鄭鷹은 정충량鄭忠樑에게 “나는 나라에 몸을 바치기로 하였네. 자네도 창을 베개 삼고 칼날을 밟는 의리를 어찌 잊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의 편지를 내어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의병 수백 명과 함께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휘하로 갔고 김명원은 이들을 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 진중으로 배속시켰다.

이 우수사는 응鷹과 홍鴻 형제兄弟를 좌우보익장으로 임명하고 전선 10여 척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당항포唐項浦에서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 장군을 만나 견내량見乃梁 전투에 참가하여 적 수십 명을 사살하였으며 안골포安骨浦 전투에서는 적선 1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 의해 응鷹과 홍鴻은 훈련원 주부 訓練院主簿에 제수되었고, 진縉은 훈련원 부정 副正에 제수되었다. 그 후로도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용맹을 발휘하여 승전하였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 때 최전선에서 분전하다가 응鷹이 먼저 전사하고 이어 홍鴻과 진縉도 순국 殉國하였다.

응鷹의 부인 광산정씨 홍鴻의 부인 광산김씨 진縉의 부인 순창설씨는 손불면의 죽사동으로 피란을 했다가 적에게 붙들리자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절을 지켰다.

칠산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월야의 8열부와 같은 열부들로 그 굳은 절개를 숭앙해오고 있다.

정조33년 1799년 도내의 유림들이 상언 上言하여 예조판서 서용보가 사실을 조사하는 등 절차를 밟아 1801년 순조원년 응鷹과 홍鴻 그리고 진縉 모두에게 병조참의가 추증되고 함평 월야면 용월리 외세마을 오산사에 배향되었다.

현재 그 후손들이 월야면 용월리와 영월리 양정리에서 살고 있다.

高亭公 諱縉 12世孫 雲谷 炳鉉

기적소리



호남종친회 고문

鄭 遇 光

2015년 5월, 고향 가는 군내버스가 푸르름 속으로 빨려들 듯 달리고 있다.
 물방울처럼 생긴 꽃들이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춤추듯 흔들거리고
 도로변 곳곳에 활짝 핀 철쭉들이 부지런히 차창 가를 지나가고 있다.
 귀엽게 새로 피어난 어린 나뭇잎, 그 나뭇가지에서 대자연을 찬미하는 것같이 들려
 오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콧노래가 절로 터져 나올 것 같은 계절이다.

황금빛처럼 눈부신 햇살은 무진장 산야에 널려 있는 꽃나무들에게 울긋불긋 꽃 잔
 치를 베풀게 하더니 이젠 온통 세상을 푸른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이 같은 차창 밖의 풍경에 도취되어 있는데, 버스가 어느새 연자방아 돌고 돌던
 고향마을 앞에 멈춰 선다.

고향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백구과극(白駒過隙)이라더니, 어느새 28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떠나고 허리 굽은 노인네들이 사는 고향. 내 어렸을 때는 대대
 로 한 집에 살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혼정신성(昏定晨省), 자식들이 부모를 정성껏 봉양했
 다. 그러나 지금의 이 노인들은,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며 스트레스 쌓이는 생활보다는
 몸은 고되고 외롭더라도 마음 편히 살려고 배우자와 사별하고도 자식들과 떨어져 살

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하나 반겨줄 옛 친구도 없는 쓸쓸한 고향이지만, 마을 뒷산에 잠드신 양친님 산소를 살피고, 큰애도 살고 있어 해마다 한두 번씩은 찾아온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려하지도 않고 복도나 승강기에서 마주쳐도 목례는커녕 외면해 버리는 도시의 공동주택 사람들, 뼈꾸기가 창문을 열고 뼈꾸 뼈꾸 시간을 알려주곤 곧 창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뼈꾸기 시계집처럼 창이란 창은 공기조차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게 닫아버린 폐쇄된 콘크리트 아파트 속에 갇혀 살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일상에 파묻혀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에 빠질 때면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는 이른바 유정幽情의 감회를 안겨주는 고향이 그리워진다.

들에는 달래, 냉이, 쑥부쟁이 등 봄나물들이 남새밭에는 인동의 푸성귀가 풍성한 봄날에 소꿉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 칩뿌리를 캐어먹고 꿩, 뜸부기 알을 주우려고 산과 논배미를 뛰어 돌았던 일, 초승달이 수줍음을 머금고 활짝 핀 초가지붕 위의 하얀 박꽃과 밀어를 나누는 여름밤, 대부채로 모기를 쫓으며 옥수수를 뜯던 일들이 눈앞에 아련히 떠오른다.

공기 맑고 공해 없는 고향, 도시의 네온사인 대신 내 고향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자연의 별빛을 보고 싶다. 삭막한 도시를 떠나 숲으로 뒤덮인 계곡, 그 사이사이를 흘러내리며 속삭이는 옥류玉流, 이름 모를 산꽃, 새소리, 봄뿔 울음이 어우러져 선경仙境을 연출하는 산길을 한없이 걷고 싶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뒷산에 오르니 멀리 우뚝 솟은 수련산이 보인다. 어렸을 적 꿈을 꾸게 한 산이다. 내가 6년간 다녔던 초등학교(당시는 심상소학교)도 보인다. 모교에서 15년간 교편을 잡았으니 무려 21년의 인연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근무할 때 1000여 명이던 학생 수가 지금은 50명 내외라니, 할 말을 잃는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앞산 위의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기적소리를 듣고 새벽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가시던 어머니의 옛 모습이 떠오른다.

당시엔 시계가 없어 낮에는 나무그림자나 해의 위치를 보고, 밤에는 닭 울음소리나 호남선 철길을 달리는 기차소리를 듣고 시간을 짐작하곤 했다.

어느새 오뉴월 긴 긴 해가 서산에 걸리면서 붉게 타는 저녁놀이 내 고향 산야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효선^{孝仙} 정발^{鄭潑} 선생^{先生} 행장^{行狀}



대중회발전연구위원장
호남중친회 자문위원

鄭 遇 杰

공^公 성^姓 정씨^{鄭氏}요^요諱^諱는^는 潑^潑이며^며 자^字는^는 淨叔^{淨叔}, 號^號는^는 孝仙^{孝仙}이니^니 나주^{羅州}에서^{에서} 계출^{系出}하고^고 문정^{文靖}
공^公 설재^{雪齋}선생^{先生}의^의 11대^代손^孫이^이요^요 경무공^{景武公} 영모정^{永慕亭}선생^{先生}의^의 6대^代손^孫이며^며 祖^祖의^의 諱^諱는^는 詳^詳이^이요^요 號^號는^는
창주^{滄洲}이며^며 문과^{文科}장원^{壯元}급제^{及第}하여^여 호조^{戶曹}정랑^{正郎}에^에 임용^任되고^고 무주^{茂朱} 철원부사^{鐵原府使}를^를 역임^歷하였으며^며 고^考
의^諱는^는 如麟^{如麟}이^이요^요 號^號는^는 護錦^{護錦}이며^며 官^官은^은 嘉儀^{嘉儀}大夫^{大夫} 慶原^{慶原}都護^{都護}府使^{府使}와^와 龍川^{龍川}防禦^{防禦}使^使 在任^{在任}中^中
명^明나라^{나라} 장수^{將帥} 모문룡^{毛文龍}의^의 횡포^{橫暴}를^를 지지^支하^하였으며^며 忠武^{忠武}祠^祠와^와 雪齋^{雪齋}書院^{書院}에^에 배향^配되^되었다.

어머니는 仁同^{仁同}張氏^{張氏} 玉城^{玉城}府院君^{府院君} 麒禎^{麒禎}의^의 女^女이다. 光海^{光海}君^君 9年^年 丁巳^{丁巳}에^에 낳^낳으니^니 性品^{性品}이^이
맑고^淸 軒豁^{軒豁}하였다.

공^公의^의 나이^{나이} 겨우^{겨우} 八歲^{八歲}에^에 甲子^{甲子}適亂^{適亂}을^을 당^當하여^여 大駕^{大駕}가^가 公州^{公州}로^로 南行^{南行}하^하니^니 父親^{父親} 護錦^{護錦}先^先
생^生은^은 本道^{本道} 軍兵^{軍兵}을^을 거느리고^고 떠난^나 후^후 公^公의^의 집^집은^은 쓸어버린^린 것^것 같^같았다.

이때^時 어머니^母 張氏^{張氏}夫人^{夫人}을^을 받들고^고 섬^섬 가운데로^로 避亂^{避亂}을^을 했는데^데 大夫人^{大夫人}께서^{께서} 갑자기^時 病^病

을 얻어 자리에 누웠을 때 ^{적도 수백} 賊徒 數百이 ^{도중} 島中으로 ^{돌입} 突入하니 섬 주민들이 모두 흩어졌는데 ^{대부인} 大夫人의 ^병 病은 거의 ^{사경} 死境에 이르러 ^{공 단지} 公이 斷指를 하여 입에 피를 드리우니 다시 ^{회생} 回生하였다. 이 광경을 본 ^{적도} 賊徒들이 이 ^{효행} 孝行에 ^{감동} 感動하여 물러가니 이로부터 ^{거민} 居民들이 ^{안도} 安堵하여 ^{공 덕} 公의 德을 ^{칭송} 稱頌하였다.

^{병자호란} 丙子胡亂 때 ^{남한} 南漢이 ^{위급} 危急함을 듣고 ^{부명} 父命으로 ^형 兄인 ^집 浣과 ^{당형} 當兄인 ^란 瀾과 ^{남간} 南澗 ^{라해봉} 羅海鳳 ^{진사홍매} 進士洪邁들이 ^{상의} 相議 ^{방략} 方略하고 당시의 ^{원님} 元님 ^{죽남} 竹南 ^{오준} 吳竣을 만나 ^{전복} 戰服과 ^{병기} 兵器를 얻어 ^정 丁 ^축 丑 ^{정월초팔일} 正月初八日 ^{의병} 義兵을 일으켜 ^{기옹} 畸翁 ^{정홍명} 鄭弘溟 幕에 이르렀다. ^{기옹} 畸翁이 ^{견공} 見公하니 ^{도량} 度量이 크고 넓으며 ^{재예} 才藝와 ^{용맹} 勇猛이 뛰어난을 칭찬하고 “^{과목기재} 頗牧奇才요 ^{일성충절} 日星忠節이 멀다 않고 여기까지 오니 이는 하늘이 만드시 나를 도우미로다.” 하였다.

^공 公은 ^{지휘} 指揮 ^{방략} 方略을 ^논 論하며 ^{정숙} 整肅한 ^{몸가짐} 몸가짐을 잃지 않고 ^적 賊을 무찌르며 ^{청주} 淸州에 이르러 ^{삼전도} 三田渡의 ^{패전} 敗戰 소식을 듣고 아픔을 참으며 ^{고향} 故鄕에 돌아와 ^{두문불출} 杜門不出하고 ^{자연} 自然을 벗 삼아 살았다. 그때 ^{우암} 尤庵 ^{송선생} 宋先生의 ^{문하} 門下에 ^{종유} 從遊하게 되었으니 ^정 情이 깊고 ^{우의} 友誼가 ^{敦篤} 敦篤 하여 세 차례 ^{선생} 先生의 ^{수찰} 手札이 있었으니 ^{약왈} 略曰 지난 가을에 ^{왕립} 往臨하여 항상 마음속에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또 멀리서 ^{중서} 中書를 받으니 더욱 ^{감회} 感懷가 많구료. 이제 온 편지에 다만 ^{팔경제목} 八景題目만 썼는데 다른 글은 ^{조만시성} 早晚詩成하여 보내지요. 또 ^왈 曰 ^{문곡} 文谷의 아 품이 오래고 더욱 심하니 생각하는 ^{회포} 懷抱가 서로 같구료. 아우편에 보낸 글은 받아 보았는지요. 만약 ^{약물} 藥物이 있으면 반드시 ^{고휼} 顧恤함이 어떨까요. 또 ^왈 曰 받들어 알건대 ^상 喪 이 있고 ^{질병} 疾病이 위험하다니 이 몸도 바야흐로 이로써 걱정이요. 다만 가히 ^{상련} 相憐할

따름이요. ^{계 등} 주신 溪藤은 보배로 알고 사랑하고 있소. ^{선 생 공 추 허} 先生이 공에게 推許한 말이 이와 같았다.

^{숙 종 기 미 칠 월 십 육 일} 肅宗己未七月十六日에 ^{졸 수 육 십 삼} 卒하니 ^{통 훈 대 부 장 악 원 정 증 직} 壽는 六十三이라. 通訓大夫掌樂院正에 贈職되다.

^{묘 나 주 백 룡 산 선 영 하 해 좌 원 배 숙 인 함 평 이 씨 우 후 덕 일 여 묘 합 부} 墓는 羅州白龍山先塋下亥坐原하다. 配淑人咸平李氏虞侯德一의 女이며 墓는 合附

하다. ^{삼 남 장 희 서 무 과 선 진 관 진 용 교 위 훈 련 원 봉사 철 원 부 사} 三男을 두니 長에 羲瑞 武科宣傳官振勇校尉訓鍊院奉事에 鐵原府使를 지내다.

^{차 공 서 원 서 희 서 남 장 증 가 선 대 부 호 조 참 판 겸 동 지 의 금 부 사 오 위} 次는 公瑞와 元瑞요, 羲瑞의 男에 裨이니 贈嘉善大夫戶曹叅判兼同知義禁府使五衛

^{도 총 부 부 총 관 차 승 증 현 기록 공 진 절 고 의} 都摠府副摠官이며 次에 晷이니 曾玄은 記錄을 다하지 못한다. 오! 公의 眞節高義가

이와 같이 있거늘 깎이어 ^전 傳함이 없음은 아마 그 ^{자 손 미 거} 子孫의 迷舉한 탓이로다. 다행히

^{공 후 손 지 회 동 회 수 장 문 행 록} 公의 後孫 芝會 東會가 이제 그 修藏의 文을 나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行錄을 玆하기

에 나는 ^{선 세 의} 公경함이 일어나 옷깃을 여미었으며 先世의 誼가 매우 두터워 사양치 못하고

이와 같이 삼가 그 ^{대 개} 大概를 모았으니 뒤에 ^{입 언 군 자} 立言君子를 기다린다.

병 술 춘 삼 월 하 순
丙戌春三月 下旬

풍 산 홍 승 은 근 지
豊山 洪承殷 謹識

일헌공逸軒公 정심鄭謹



대종회 고문

鄭 君 燮

일헌공逸軒公 정심鄭謹(1520~1602)

지는 중실仲實이고 설재공의 9대손이며, 경무공의 현손이다. 어려서부터 남보다 뛰어나게 총명하였으니 말을 배우면서부터 문자를 해득하였다. 9세 때 관찰사가 고을을 순찰하면서 선비들의 글재주를 시험하는데 공이 응시하여 상으로 뽑혔다.

1552년 33세에 진사에 합격하고, 1568년 49세에 선조즉위宣祖卽位의 증광시增廣試(문과)에 급제했다. 여러 벼슬을 거쳐서 호조정랑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와 있다가 그 해 가을에 다시 이조정랑에 제수되니 부모의 명에 따라 출사했는데 수일이 못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었다.

“中流失棹에 南北誰先고 谷口鞭驢하니 故逕依然이라.”

그 뜻은 “물 가운데서 노를 잃었으니 남북 중 어느 곳을 먼저 할까. 곡구에 나귀를 모니 옛길이 의연쿠나.”이다.

오직 아버이를 모시고자 벼슬을 버렸으며 성품이 맑고 고와서 수석을 좋아하여 경치 좋은 곳을 가려 정자를 지으니 화수花樹가 줄지어 이어지고 송죽이 교취交趣함에

이곳에서 글을 읊으며, “임천林泉이 좋아 흥취興趣가 유연히 이는데 어느 누가 나의 어깨를 잡으랴.”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목사 박광옥朴光玉 선생과 창의할 것을 논의했고, 창의사 김천일金千鎰 장군이 처음 의병을 일으키면서 공에게 고하니 즉시 의청義廳으로 달려 가서 피를 마시고 맹세하니 이 사실이 계곡 장유와 수은 강항의 문집과 김천일 장군의 묘정비廟庭碑에 실려 있으며, 제봉 고경명 장군에게도 격려하는 글을 보냈으니 어제의 일처럼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공은 73세의 고령으로 왕의 파천에 호종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붓을 들 때마다 “내 목숨만 아낀 죄인이라.” 자책하였다.

절도사 최경회崔慶會가 전사하니 글을 지어 조위하고 명나라의 심유경沈惟敬이 화친을 주장할 땐 격분하여 오적가鑿賊歌(적을 무찌르자는 글)를 지었다.

후에 설재서원에 배향되었다.



나주시 노안면 금안동 소재 귀래정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경무공 정식景武公鄭軾 국사록國事錄



대중회발전연구위원
호남종친회 고문
예빈시 참봉공 대표

鄭 榮 柱

◎ 세조世祖 27卷, 8年(1462 임오壬午/명 천순天順 6年) 2月 20日 을유乙酉, 2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가 올적합·김우두 등을 인견하고 주연을 베풀다.

○ 御宣政殿, 引見兀狄哈金于豆等設酌。 內宗親及左議政申叔舟、右贊成具
致寬、花川君權恭、禮曹判書洪允成、知中樞院事金淳、判漢城府事鄭軾、兵
曹判書尹子雲、戶曹參判李克堪、刑曹參判李石亨、兵曹參判金國光、承旨等
入侍。 命于豆進酒, 賜于豆等衣帶等物有差。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올적합兀狄哈 김우두金于豆 등을 인견引見하고 술자리를
베풀니, 내종친內宗親과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화천
군花川君 권공權恭·예조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순金淳·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식鄭軾 · 병조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 · 호조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 · 형조참판刑曹參判 이석형李石亨 · 병조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 ·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김우두에게 명하여 술을 바치게 하고, 김우두 등에게 의대衣帶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 세조世祖 28卷, 8年(1462 임오壬午/명 천순天順 6年) 3月 7日 임인壬寅 1번째 기사 김연지 · 정식 · 이순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유지 · 이순백 등은 강등시키다.

○ 壬寅以金連枝判漢城府事, 鄭軾知中樞院事慶尙左道節制使, 李純之仁

순부윤 順府尹, 趙誠山行判司僕寺事, 鄭種慶尙左道都按撫處置使。以藏氷稽緩, 降

광주목사庾智, 驪興府使李淳伯、抱川縣監河孟洵、川寧縣監李貴然、果川縣

監崔季男、砥平縣監李云恭等一資。

【태백산사고본】

김연지金連枝를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정식鄭軾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경상좌도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로, 이순지李純之를 인순부윤仁順府尹으로, 조성산趙誠山을 행판사복시사行判司僕寺事로, 정종鄭種을 경상좌도도안무처치사慶尙左道都安撫處置使로 삼고, 얼음을 갈무리하는 것을 지완遲緩하였다고 하여, 광주목사廣州牧使 유지庾智 · 여흥부사驪興府使 이순백李淳伯 · 포천현감抱川縣監 하맹순河孟洵 · 천녕현감川寧縣監 이분연李貴然 · 과천현감果川縣監 최계남崔季男 · 지평현감砥平縣監 이운봉李云恭 등은 1자금을 강등하였다.

◎ 세조世祖 32卷, 10年(1464 갑신甲申 / 명 천순天順 8年) 3月 18日 신미辛未 1번째 기사 이수남이 재차 아버의 일로 상언하니 보방하여 치료하게 하다.

○ 辛未/李壽男^{리수남}再上書, 訟父無情, 上命洪允成、鄭軾^{정식}曰: “李誠長^{리함장}之事, 關於大綱, 予見於未明, 欲固宗社三綱之本欲,” 又引古文, 多所教證, 既而命保放, 定醫^{정 의 구 치}救治。

이수남李壽男이 재차 상서上書하여 아버의 정상이 없음을 하소연하므로, 임금이 홍윤성洪允成 · 정식鄭軾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함장李誠長의 일은 대강大綱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내가 미연에 방지하여 종사宗社와 삼강三綱의 근본을 굳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고, 또 고문古文을 인용引用 교증教證한 바가 많았으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보방保放하게 하고, 의원醫員을 정定하여 치료하게 하였다.

◎ 세조世祖 34卷, 10年(1464 갑신甲申/명 천순天順 8年) 8月 8日 기축己丑 2번째 기사 김질 · 홍윤성 · 정식 등으로 삼갑전을 행하게 하다.

○ 以奉石柱、權摯爲左右廂大將, 以居平正李復、同知中樞院事梁誠之、行上護軍宋處寬爲衛將。誠之、處寬皆儒緩無武才, 其爲將, 戲之也。臨瀛大

^군 ^이 ^군 ^{령의} ^정 ^신 ^숙 ^주 ^인 ^산 ^군 ^홍 ^운 ^성 ^수 ^가 ^좌 ^우 ^상 ^선 ^구 ^남 ^산 ^가 ^지 ^사 ^장
 君 李璆、領議政申叔舟、仁山君 洪允成隨駕。左右廂先驅南山，駕至射場，
^령 ^월 ^산 ^군 ^절 ^자 ^을 ^산 ^군 ^금 ^상 ^산 ^군 ^회 ^사 ^호 ^소 ^경 ^지 ^석 ^주 ^책 ^불 ^능
 令月山君 婷、者乙山君 【今上山君諱。】射狐，召擊 [擊]、石柱，責不能
^구 ^수 ^지 ^칠 ^덕 ^정 ^우 ^이 ^환 ^종 ^손 ^위 ^중 ^살 ^대 ^장 ^위 ^삼 ^갑 ^전 ^중 ^상 ^추 ^좌 ^상 ^좌 ^상 ^추 ^우
 驅，遂至七德亭，又以韓終孫爲中廂大將，爲三甲戰，中廂逐左廂，左廂逐右
^상 ^이 ^우 ^전 ^목 ^창 ^상 ^사 ^자 ^삼 ^상 ^개 ^불 ^능 ^군 ^상 ^친 ^수 ^절 ^도 ^우 ^불 ^능 ^개 ^령 ^탈 ^笠 ^전
 廂，以羽箭木槍相射刺，三廂皆不能軍，上親授節度，又不能，皆令脫笠。傳
^왈 ^여 ^등 ^개 ^공 ^신 ^여 ^욕 ^용 ^지 ^금 ^관 ^전 ^세 ^개 ^불 ^용 ^인 ^야 ^이 ^길 ^질 ^위 ^좌 ^상 ^대 ^장 ^정
 曰：“汝等皆功臣，予欲用之，今觀戰勢，皆不用人也。”以金磧爲左廂大將，鄭
^軾 ^爲 ^우 ^상 ^대 ^장 ^홍 ^운 ^성 ^위 ^중 ^상 ^대 ^장 ^호 ^상 ^추 ^지 ^운 ^성 ^욕 ^자 ^질 ^잠 ^전 ^예 ^장 ^어 ^유 ^소
 軾爲右廂大將，洪允成爲中廂大將，互相逐之。允成欲刺磧，潛遣銳將魚有沼
^등 ^수 ^어 ^좌 ^상 ^중 ^질 ^지 ^지 ^기 ^대 ^장 ^기 ^변 ^복 ^은 ^어 ^졸 ^오 ^중 ^유 ^소 ^등 ^각 ^이 ^추 ^지 ^윤
 等，搜於左廂中，磧知之，棄大將旗，變服隱於卒伍中，有沼等覺而逐之。允
^성 ^즉 ^치 ^마 ^이 ^추 ^질 ^리 ^진 ^이 ^주 ^윤 ^성 ^추 ^급 ^안 ^하 ^이 ^주 ^창 ^중 ^기 ^배 ^상 ^망 ^견 ^대 ^소
 成卽馳馬而逐，磧離陣而走。允成追及岸下，以朱槍中其背。上望見大笑，
^초 ^윤 ^성 ^급 ^질 ^령 ^윤 ^성 ^진 ^주 ^사 ^안 ^마 ^소 ^제 ^장 ^왕 ^차 ^내 ^전 ^야 ^피 ^석 ^주 ^등 ^여 ^아 ^희
 招允成及磧，令允成進酒，賜鞍馬。召諸將曰：“此乃戰也。彼石柱等如兒戲
^이
 耳”

봉석주奉石柱와 권지權摯를 좌상대장左廂大將·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거평정
 居平正 이복李復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와 행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
 宋處寬을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나, 양성지·송처관이 모두 유약懦弱하고 느려서 무재
 武才가 없으니, 그 장수將帥 된 자가 그들을 조롱하였다.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인산군仁山君 홍운성洪允成도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였
 다. 좌상左廂·우상右廂이 먼저 남산南山을 몰이하고 어가가 사장射場에 이르러 월산
 君月山君 이정李婷과 자을산군者乙山君 【금상今上의 휘諱】으로 하여금 여우를 쏘게

하고, 권지·봉석주를 불러서 능히 물이하지 못한 것을 힐책하고, 드디어 칠덕정七德亭에 이르러 또 한종손韓終孫을 중상대장中廂大將으로 삼아서 삼갑전三甲戰을 하였다. 중상中廂에서 좌상左廂을 쫓았고, 좌상左廂에서 우상右廂을 쫓아서 우전羽箭·목창木槍으로써 서로 쏘거나 찌르자, 삼상三廂이 모두 능히 군율軍律을 세우지 못하였고, 임금이 친히 지휘를 내렸으나, 또 능히 하지 못하니, 모두 갓笠을 벗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너희들이 모두 공신功臣이니, 내가 등용登用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싸우는 것을 보니, 모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김질金磧을 좌상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정식鄭軾을 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홍윤성洪允成을 중상대장中廂大將으로 삼아 서로 쫓게 하였다. 홍윤성이 김질을 찌르고자 하여 몰래 예장銳將 어유소魚有沼 등을 보내어 좌상左廂의 진중陣中을 뒤지니, 김질이 이를 알고 대장기大將旗를 버리고 변복變服하여 졸병卒兵의 대오隊伍 가운데 숨었는데, 어유소 등이 깨닫고 뒤쫓았다. 홍윤성 등이 즉시 말을 달려서 쫓으니, 김질이 진중陣中을 떠나서 도망하였다. 홍윤성이 뒤쫓아 언덕 아래에 이르러 주창朱槍으로 그 등[背]을 맞히었다. 임금이 바라보고 크게 웃으면서 홍윤성과 김질을 불러 홍윤성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안마鞍馬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여러 장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저 봉석주奉石柱 등은 어린아이 장난 같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4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註]금상_{今上} : 성종.

[註]삼갑전_{三甲戰} : 27인을 갑_甲·을_乙·병_丙의 3대_隊로 나누어 1대는 3통_統으로 하고, 1통에는 장수 1인, 졸병 2인을 두어 각기 작은 방패와 창을 가지는데 창끝을 주칠_{朱漆}로 적셔, 싸울 때는 창으로 등을 찌르고 싸움이 끝나면 등의 붉은 점_{朱點}을 계산하여 승패를 정하는 것.

[註]예장_{銳將} : 선봉장.

◎ 세조_{世祖} 34卷, 10年(1464 甲申 / 명 천순_{天順} 8年 9月 8日 무오_{戊午} 2번째 기사 한계미·정식·강노 등에게 군적에 관한 일을 맡기다.

○ 이서원군 以西原君 한계미 韓繼美 위평안 爲平安、황해 黃海、강원도군적사 江原道軍籍使、지중추원사정식 知中樞院事鄭軾 慶
상 전라도군적사 全羅道軍籍使、수원부사강로 水原府使姜老、경기 京畿、충청도군적부사 忠淸道軍籍副使。老在水原，數被
소_召與議軍籍，故爲副使焉。

서원군_{西原君} 한계미_{韓繼美}를 평안·황해·강원도_{平安黃海江原道} 군적사_{軍籍使}로 삼고, 지중추원사_{知中樞院事} 정식_{鄭軾}을 경상·전라도_{慶尙全羅道} 군적사_{軍籍使}로 삼고, 수원 부사_{水原府使} 강로_{姜老}를 경기·충청도_{京畿忠淸道} 군적 부사_{軍籍副使}로 삼았는데, 강노가 수원에 있으면서, 수차 임금의 부름을 받아 군적_{軍籍}을 의논하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사_{副使}로 삼았다.

◎ 세조_{世祖} 34卷, 10年1464 甲申 / 명 천순_{天順} 8年 9月 12日 壬戌 1번째기사

선두안을 위조한 태인현의 이전·송지 등을 극변의 관노로 붙이게 하다

○ 壬戌 / ^{이 권반래 정식위 군적사}以權攀代鄭軾爲軍籍使。 ^{형조계}刑曹啓: “^{태인현리 송지여 홍습등 위조}泰仁縣吏宋祉與洪習等僞造
^{선두안}宣頭案, ^{모수계사노비소종면포오백륙십필}冒受諸司奴婢所贈綿布五百六十匹, ^{여물칭시}餘物稱是, ^{청각장일백}請各杖一百, ^{류삼천}流三千
^리里。” ^{명속극변관노}命屬極邊官奴。

【영인본】 7책 652면

권반權攀을 정식鄭軾 대신으로 군적사軍籍使로 삼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태인현泰仁縣의 이전吏典 송지宋祉가 홍습洪習 등과 더불어 선두안宣頭案을 위조하
 여 여러 관사官司의 노비奴婢가 주는 면포綿布 5백 60필匹을 함부로 받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이와 같이 핑계하였으니, 청컨대 각각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三千里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붙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65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
 動

<다음호에 계속>

羅州鄭氏 秋坡公派 志齋爲本會 會員 出捐 爲先事業 四十年史



대중회발전연구위원
대중회 자문위원

鄭 守 日

羅州鄭氏秋坡公派志齋爲本會員 出捐 爲先事業 四十年史

《1976年 11月25日 結成 2016年 現在》

- 1978.3. 砲獐洞 都先山 祭室 新築, 現在 利用 中
- 1978.3. 舊 草家 祭室은 撤去하여 그 木材로 管理舍 建築, 現在 居住
※ 위 2건 事業은 修公宗中 [宗.中.季] 3派 均等 出捐 事業
※ 祭室 : 都邊首 서치술. 管理舍 : 정수일, 정길先 都給 建築
- 1984.2.10. 良池里 畓 912坪 買入 (정준면씨로부터)
- 1986.7.7. 廣岩(不老山 七代祖 雙墳 (床石, 望柱 設置)
- 1986.7.7. 廣岩(不老山) 八代祖 (床石, 童子石, 望柱, 設置)
- 1988.5.25. 南塘 田 323坪 買入 (강일斗 氏로부터)
- 1993.3.8. 良池里 畓 726평 買入 (정주연 씨로부터)
- 1994.3.18. 南堂(九代合窆, 廣岩八代配位, 砲獐洞6代合窆(床石 望柱 設置)
- 1994.5. 砲獐洞 都先山 祭室 앞 水路길 옆 空地上에 停車場 建設(宗中 돈으로 시멘트鋪裝 정상연씨 도급 약 80평)
- 2000.3.19. 砲獐洞 祭室 옆에 山神祭 床石 設置
- 2000.3.19. 砲獐洞 志齋公 在模의 墓 擴張 床石, 望柱, 人石, 石燈 設置 및 墓碑

建立

- 2000.3.19. 砲獐洞 祭室 앞에 錦雲公 昺南先生 爲先功績碑 建立
- 2003.3.30. 十代, 八代, 六代, 五代(衍) 墓8기 破墓 및 移葬(既存石物은 運搬 使用, 破損된 石物은 廢棄)
- 2003.3.30. 南堂先山 世葬碑 建立
- 2004.4.25. 砲獐洞 : 六代雙墳墓碑 建立(五代雙兆床石望柱 設置)
- 2008.6.22. 秋坡公 墓碑 및 床石 設置
德坡公 德蘭 墓碑 및 床石, 信坡公 信瞻 墓碑 建立
廣岩 : 學生孝子致運公 墓碑 建立)
- 2008.6.22. 烈婦 坡州廉氏 床石 設置
- 2008.6.22. 吉齋公昺三 床石設置, 青雲公仁升 床石 設置(直系부담)
- 2009.9.6. 砲獐洞 都先山 祭室 페인트칠
- 2009.10.5. 烈婦坡州廉氏 旌門周邊 雜木除去
- 2009.10.10. 廣岩 기울어진 世葬碑 上으로 移設과 境界石 設置
- 2009.10.10. 廣岩 修公墓所 낡은床 새 床石으로 交替
- 2009.10.10. 砲獐洞 祭室 뒤쪽 주변 水界정리 (굴삭기)
※위 修公宗中事 五건은 3派代表 “守日, 昺熙, 世衍 책임 균등 부담
- 2013.3.9. 節婦孺人金氏實行碑(5代祖妣)
(侍中洞 成齋公遇亨과 草田公禧勉의 講堂터에 建立)
- 2016.2.28 砲獐洞 秋坡公 都先山 世葬碑 (建立保留)
- 2016.2.28 砲獐洞 祭室 앞에 秋坡 爲本會 事業實績碑 建立

宗家 事業

- 1986.7.7 砲獐洞 具帛公 遇鍾墓 三合兆墓를 上으로 옮겨 三雙兆로 移葬하고 床石 및 童子石 設置



砲獐洞 祭室 앞에 세운 秋坡 爲本會 事業實績碑 (2016.2.28.)

- 1986.7.7 공동산 草田公 禧勉묘에 床石및 望柱 設置
- 1994.5.8 砲獐洞 錦雲公 墓所 (床石, 望柱, 童子石 設置)
- 1994.9.4 共同山 草田公 禧勉 墓所에 童子石 및 墓前石築
- 2004.4.25 共同山 草田公 墓所 擴張하고 配位를 双兆로 移葬, 墓碑 建立
- 2008.6.22 共同山 草田公 禧勉의 墓前에 板石設置 및 石燈建立
- 2008.6.22 砲獐洞 具帛公 遇鍾의 墓碑 建立

祖上 墓地 所在

어디에나 석물이 되어 있으니 아래 장소 돌아보면 다 알 수 있음

廣岩(不老山)⇒13代(修公) 雙墳 8대(致運公) 雙墳 7代(啓杓公) 雙墳

망5代(永裕公, 烈婦 坡州廉州) 雙墳

砲獐洞 ⇒ 12代(秋坡公弼省)雙墳 11代(德蘭公)雙墳 10代(信瞻公)雙墳

6代(元赫公)雙墳 5代(永祚公節婦)雙墳 4代(志齋公在模)雙墳

3代(具帛公遇鍾)3雙墳 2代(錦雲公昺南)雙墳

南堂 ⇒ 9代(汝恒公)雙墳

共同山 ⇒ 3代(草田公禧勉)雙墳

※ [祖上順序는 守日(衍)字 行列 基準으로 記錄함]

“會員 出捐 承繼 名簿”

鄭守日 정銀京 정盛元 정址洪 정太軫 정萬喆 정承衍 정相均 정允城 정相衍 정永吉
정茂八 정陽國 정貴衍 정周衍 정善喆 정張院 정長根 정性一 정性洙 정元俊 정洙衍
정茂龍 정茂日 정茂桓 정乙衍 정壹範 정綏永 정鍾冠 정鍾奎 정鍾謹 정局相 정玉衍
정八衍 정茂京 정原州 정貴範 鄭鍾安 鄭茂石 鄭京喆

1976년 先代의 有志를 받들어 爲本會를 結成하고 每年 양력 1月 1日과 3月 1日(時祭日) 年 二회의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2016年 現在 四十年間 매년 資金을 出捐하여 門事를 추진하매 어려운 逆境을 거쳐 오늘에 이르니 어느 정도 갖추어진 듯하나 모범적인 他 門中에 비교하면 貧弱할 뿐이다. 선대의 遺訓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門事를 이어오며 記錄하노니 後孫들이 祖上섬김에 귀감이 되어 더욱 和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가길 바라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포장동 도선산 제실 앞에 이 碑를 세워 기념한다.

都有司 守日 謹錄 2016. 2. 28

立碑推進 : 鄭相衍 鄭八衍 정周衍 정鍾冠 정茂龍

四十年史 志齋爲本會 代表(都有司) 鄭守日

志齋 爲本會 事業 實績碑 出捐金 內譯

《 總合計 3,450,000원 》

2016.1.28.-2016.2.28. 立碑日까지 위 金額이 入金됐음을 確認함

이 름	금 액	이 름	금 액	이 름	금 액
정수일	300,000	정무용	100,000	정무길	100,000
정지홍	100,000	정장근	100,000	정광복	100,000
정만철	50,000	정무석	100,000	정무중	100,000
정윤성	50,000	정무일	100,000	정유철	100,000
정수영	50,000	정조안	100,000	정종헌	100,000
정종규	100,000	정사원	100,000	정성진	(신동해2백중부족)
정종관	100,000	정성일	100,000	정일범	200,000
정승연	50,000	정오일	100,000	정을연	50,000
정상균	50,000	정무철	100,000	정수연	50,000
정선철	100,000	정양국	100,000	정주연	100,000
정장원	100,000	정성수	100,000	정상연	100,000
정무팔	100,000	정선애	100,000	정팔연	100,000

羅州鄭氏 秋坡公派 志齋爲本會 代表 鄭守日 印

羅州鄭氏 상서공과 修公宗中 門土 現況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m ²)
동강면 양지리	203	垡地	861
”	204	田	895
”	209	垡地	245
”	236	畓	1,068
”	253	畓	942
”	254	田	774

”	255	畓	585
”	398	垡地	327
”	691-22	畓	1,356
”	692-4	畓	3,682
”	704-11	畓	1,500
”	826	田	371
”	828	田	1,408
”	830-1	林野	9,533
”	830-2	垡地	208
”	830-3	垡地	185
”	830-4	田	2,618
”	63-2	林野	98,562

※ 경지정리 후 변동된 新지번 지적

宗派 在模宗中 門土 現況 (등록번호 115117-3614118)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공산면가송리	산62	林野	2정7단6무보 8,294.5평
동강면곡천리	산156	林野	2,460평
공산면가송리	481-1	田	323평
동강면양지리	700-1	畓	726평
동강면양지리	700-2	畓	302평
동강면양지리	700-3	畓	725평
양지리 종가	700-6	畓	464.5평

2016. 2. 28 志齋爲本會 代表 鄭 守 日 확인 제공

유적지遺跡地 탐방探訪



전대중회발전연구위원장
호남종친회 자문위원
전 자유공파 종친회장

鄭 永 春

승모재崇慕齋

개요 概要

청계면 서호리 ^{기동}基洞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계각}齋閣은 ^{우산공신}牛山公 紳의 넷째아들인 ^송松
^{산시중}山 時重의 ^{제실}齋室이다. ^{을축}乙丑년(1975)에 ^{선조}先祖의 ^{유산}遺産으로 ^{구세손}九世孫 ^{호암승섭}湖菴承燮의 ^{주선}周旋으로
^{후예}後裔들이 지었다.

승모재기 崇慕齋記

무안현 청계방 망덕산하 ^{대촌}大村 서호리는 ^{나주정씨}羅州鄭氏들이 ^{대대}代代로 살아온 곳이다. 또
^{문정공}文靖公 ^{설재}雪齋선생의 ^{후손}後孫 ^{송산}松山 ^{호산}湖山 ^{송파}松坡 ^{서암}西庵 ^{사공}四公의 ^묘墓가 있다. ^{예장}禮葬한 ^지地 ^{이백여}二百餘

년이 가까운바 후손들이 ^{누대}累代의 ^{숙원}宿願을 탄식하고 그 ^{묘각}墓閣을 ^{구축}構築하니 바로 이 ^{숭모}崇慕
 齋다. 대개 ^묘墓에 ^제齋가 있는 것은 옛날부터이니 이 ^{제각}齋閣은 ^{사세}四世의 후손들이 ^{묘제}항상 慕祭
 를 ^당當하면 하루 ^{제숙}전날 齋宿하면서 그 ^{제명}齊明을 이루고 ^{성복}盛服하여 ^{엄결}嚴潔히 ^{봉행}奉行하여 무릇
 일이 ^{종중}宗中에 있으면 ^{종원}宗員들이 ^{회합}會合하여 ^{강의논도}講議論道하며 그 ^{선조}先祖를 위하여 ^{계획}計劃을 세워
^{사업}事業을 ^{성취}成就하는 장소다.

^{송산}松山의 ^휘諱는 ^{시중}時重이니 ^{월탄}月灘의 ^{손자}孫子요 ^{우산}牛山의 ^{아들이니}아들이니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강기}綱紀를
 붙들며 ^{덕의}德義를 ^{힘쓰니}힘쓰니 ^{향리}鄉里가 ^{추중}推重하였으며 ^{호산}湖山의 ^휘諱는 ^{세택}世鐸이니 ^{우산}牛山의 ^{손자}孫子요
^{송산}松山의 ^{아들이니}아들이니 ^{경사}經史에 ^{박통}博通하여 ^{篤실}篤實하게 ^{실천}實踐하여 ^{후진}後進을 ^{도적}導迪함을 자기의 ^{임무}任務
 로 삼으니 ^{조정}朝廷에 ^{알려져}알려져 ^{가선}嘉善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송과}松坡의 ^휘諱는 ^{하징}河徵이니 ^{송산}松山의 ^{손자}孫子요
^{호산}湖山의 ^{아들이니}아들이니 ^{둔후}敦厚하며 ^{강직}剛直하여 ^{세속}世俗에 ^{엄매지}엄매지 않고 ^{주경야독}晝耕夜讀을 ^{근본}根本으로 ^{은거}隱居
 하여 ^{의행}義를 行하니 ^{동중서}董仲舒 ^{작으로서}작으로서 ^{칭찬}칭찬이 높았으며 ^{서암}西庵의 ^휘諱는 ^{현중}顯中이니 ^{호산}湖山의
^{손자}孫子요 ^{송과}松坡의 ^{아들이니}아들이니. ^{충효}忠孝가 ^{성독}誠篤하고 ^{학문}學問이 ^{고명}高明하여 ^{세상}世上에 알려졌다.

아! 이 ^{사세}四世의 ^{학업}學業 ^{덕행}德行과 ^{의리}義理와 ^{지조}志操가 ^{저렴}저렴듯 ^{고원}高遠하고 ^{박수}博邃하며 모두 한 벌
 안에 ^{예장}禮葬하였으니 ^실實로 ^{옥산}玉山이 ^{층층}層層이 ^{쌓이고}쌓이고 ^{장광}藏光 ^{더욱}더욱 ^{아름다움}아름다움 ^{같은지라}같은지라 ^{후손}後孫들
 이 ^{영세}더욱 永世토록 잊지 못하게 된다.

그옥이 ^{세상}생각건대 사람이 ^{조상}世上에 나와서 ^{자손}祖上되기도 어렵고 ^{자손}子孫되기도 어려우니
 대저 ^{선세}先世의 ^{덕업}德業 ^{숭광}崇曠이 어려운 것이요 ^{후손}後孫이 ^{선계}善繼하고 ^{선술}善述함이 어려운 것이다.
^{나주정씨}羅州鄭氏의 ^{중조}中祖 ^{사세}四世가 모두 어질고 ^{후손}後孫이 이제 그 ^{영세}永世토록 잊지 ^{장소}아니할 場所
 를 이루니 ^{제실}어찌 드문 일이 아니며 어찌 어려움이 아니리오. 아! 이 齋室을 지으려고

한 지 오래 되었는데 ^{저 축}貯蓄한 ^{유 산}遺産이 ^{거 액}巨額이 되었다. 이제 ^{문 의}門議를 ^{준 발}峻發하여 ^{합 모}合謀로
 돌아가 ^{착 수}着手한 지 몇 달이 안 되어 ^{준 공}竣工하니 ^{산 천}山川이 ^{증 채}增彩하고 ^{동 학}洞壑이 ^{조 경}調景
 하며 ^{사 공}四公의 ^{덕 업}德業이 다시 일어나고 ^{후 손}後孫의 마음과 힘이 ^{혁 신}革新하였다.

주
*註

^{제 숙}齊宿 - 모두 함께 ^{유 숙}留宿함

^{제 명}齊明 - 공정하고 밝음. 즉 ^{부 정}不淨을 ^{금 기}禁忌하여 ^{심 신}心身을 깨끗이 함

^{성 복}盛服 - ^{예 의}禮儀를 갖춘 ^{정 장}正裝 또는 화려하게 차려 입음

^{도 격}導迪 - ^{인 도}引導하여 열어 줌

^{동 중 서}董仲舒 - ^{전 한}前漢의 ^{대 학 자}大學子, ^{유 교 일 존 주의}儒教一尊主義를 세워 ^{유 교}儒教 독립의 ^{기 반}基盤을 확고히 함

^{박 수}博邃 - ^{학 문}學問이 넓고 깊음

^{준 발}峻發 - 크게 ^{발 의}發議함

^{조 경}調景 - ^{경 치}景致가 ^{조 화}調和를 이룸

매죽재梅竹齋 탐방探訪



전 서울중친회장
(재)설재장학회 이사
지유공파중친회장

鄭 珠 行

매죽재梅竹齋

개요 概要

함평군 엄다면 송촌마을에 매죽재梅竹齋가 있으니 휘일중一中이 그의 주인이며 월봉공황수
의 오세손五世孫이다.

매죽재기 梅竹齋記

각가문各家門의 齋閣扁額을 보면 그 영사영사추모永思하고 追慕하는 뜻을 많이 부쳤으며 또한 그
산수山水의 명호명호인인 것이 많거늘, 말하기를 산산내가 그 높은 것을 취취할 뿐이요 물
은 내가 그 깊은 것을 취취할 뿐이니 내가 이미 그러한 자취를 잡고 자강자강함이 없는데
실실산수山水는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한데 사람이 산수山水를 저버린者 많다. 영사영사추
모모慕하는 뜻에 이르러 후손후손자자 누가 이 마음이 있지 아니하리오. 이제 오족오족齋室

매죽 편액 梅竹의 扁額을 보니 가히 그 孝思維則의 마음을 살피겠다. 猗하고도 盛하도다. 梅竹
 공 휘 일 중 장 자 송 은 공 휘 광 렬 사 자 현 성 송 촌 재 각
 公 諱 一中의 長子 松隱公 諱 光烈의 四子를 이끌고 縣城의 동쪽 松村에 한 齋閣을
 고 묘 서 부 친 호 재 각 편 액 자 손 수 학
 考墓의 西편에 지어 父親의 號를 잊지 않으려고 그 齋閣에 扁額하고 子孫들의 修學
 장 소
 場所로 삼았다.

아! 日月이 말처럼 빠르고 風雨에 洗磨되어 齋는 허물어지고 터(址)는 비니 물을
 폐
 차마 廢할지언정 땅은 차마 묵히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마음이 들떠
 있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今秋에 門中에 發議하여 意見一致를 보아 左右에서 木手
 금 추 문 중 발 의 의 건 일 치 좌 우 목 수
 를 부르고 前後에서 木材를 運搬하여 建築하니 燠窒과 涼欄이 東西로 對峙하였다.
 전 후 목 재 운 반 건 축 옥 질 양 란 동 서 대 치
 工事가 끝남에 桑田(遇基)翁과 良勉이 오래됨에 考徵이 없을까 두려우니 한 마디
 공사 상 전 우 기 움 양 면 고정
 事實을 記述하기를 請한지라 내가 공손히 일어서서 喟然히 말하기를 祖先의 世德을
 사실 기술 기 술 청 우 연 조 선 세 덕
 記述함은 이제 孝子와 子孫이 마땅히 힘쓸 일이다. 諸宗들이 先祖의 懿德을 追慕하
 기 술 효 자 자 손 재 종 선 조 의 덕 추 모
 여 堂을 百年이 지난 뒤에 지으니 그 孝思 가히 篤實하다 할 것이요, 그 誠實 가히
 당 백 년 효 사 독 실 성 실
 부지런하다 할 것이다. 내가 族親의 誼에 있으니 어찌하여 한 마디 말이 없으리오.

아! 梅竹은 植物의 한 가지로 여러 草木과 다름이 없다. 다시 一說이 있으니 물
 매 죽 식 물 초 목 일 설 물
 나 내가 一理다. 사람은 능히 物을 命名하나 物은 능히 사람을 命名하지 못하므로
 일 리 물 명 명 물 명 명
 옛날 사람이 梅로써 君子에 比하고 竹으로써 君子라 稱하니 淸秀함이 梅竹만 같음이
 매 군 자 비 죽 군 자 칭 칭 수 매 죽
 없으므로 사람의 性品이 서로 가까운 者 많이 取하였다.
 성 품 자 취
 性品이 서로 가까운 者 많이 取하였다.

그러나 人情은 反復하여 혹 蕩蕩함이 없으나 物性은 天然히 一定하니 物로써 사람
 인 정 반 복 물 성 천 연 일 정 물
 을 본다면 어찌 사람의 아름다움을 依賴하리오. 梅竹이 庭畔에 共生하여 지극히 徵
 의 리 매 죽 정 반 공 생 정
 을 본다면 어찌 사람의 아름다움을 依賴하리오. 梅竹이 庭畔에 共生하여 지극히 徵

세 물이 나타난 이름을 얻은 것은 매의 암향이 부동하여 위로 가이 써 신명에 드리
 고 아래로 가히 臭穢를 물리치며 竹의 幽密하고 淸涼함을 겨울이 奪取하
 지 못하고 여름이 더워도 능히 侵入하지 못하니 이 眞實로 物理의 完全함이니 假借
 함이 기다림이 없다. 그런즉 先德의 誠意를 잊음이 없음이 지극하며 다 한지라 지금
 부터 앞으로는 享祀에 齊宿의 場所가 親足の 講睦이 지리가 있으니 아침에는 부지런
 하고 저물면 두려워하여 老人은 젊은이를 이끌고 어린이를 이끌어 겨례를 모으고 學
 問을 探究하는데 從하여 省察한 사이에 서로가 勤勉하여 스스로 洪流가 奔波한 中에
 서 이끈다면 風聲을 심고 世教를 불드는데 어찌 가히 조금 보탬이 된다고 하리요.
 이는 한갓 紹述하고 闡明하는 일만이 아니요, 또한 왕래한 인사로 하여금 登臨하면
 반드시 法家의 孝孫을 指目할 것이니 힘쓸지어다.

류치 승 연하 미 군자 논을 기다리노라.

주
 *註

소술 선대 위업
 紹述—先代의 偉業을 이어받아 밝힘

천명
 闡明—드러내어 밝힘

유치
 流峙—흐르는 것과 높이 솟은 것. 즉 山川을 말함

연하
 煙霞—고요한 산수의 경치

※ 지난 宗報 22호에 실린 端廟忠義錄은 필자의 부탁으로 추파공 정병우님께서 국립중앙도서관 6층 고문서자료실에서 찾은 것임.

어머니께 올리는 불효자의 泣血歌



대중회발전연구위원 간사
逸軒公15世孫

鄭 曷 璿

죄송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 5월 21일 어머니께서 아주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한 분, 자식 하나였는데 외톨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날짜 계산이 불확실해지더니 죽음에 임박해 가는 3개월 전부터는 급속도로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요양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불효자를 바라보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언제 또 오느냐고, 마지막 남긴 모자간의 대화였고 이제 더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강한 어머니로서 93세가 되도록 병원은 단 세 번 찾았으니, 첫 번째는 70년대 초 시골집에서 독사에 물려 광주 적십자병원에, 두 번째는 가벼운 피부질환으로 확인차 병원을 찾았으나 한 번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만큼 평생을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일주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까지, 그동안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어머니께서 계신 효령동 제2추모관으로 참배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어머니

가을기운 山 북쪽으로 달아나니
어느덧 계절이 추워지고 있구나.
오늘 아침도 힘들게 걸어 나오시는
어머니를 보니 시골벽적 티끌세상
구십여 년 세상일에 쫓기며 여기까지 다다랐네.
천명은 알 수 없어 기척에 귀 기울이며
힘든 삶 걸어가는 길 지켜보기 어렵네.
담 너머로 건네주고 받아오던
시골집 정겨운 이웃들의 정과
예전 친하던 벗들은 어디에서 늙고 어디로 떠나들 갔는가.
홀로 고향 찾아와 꿈틀거리는 추억을 거두어 보네.

93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깐 사이 생사 갈리는
꿈과 생사가 이승과 저승길
인간 세상엔 살피볼 것도 많아
그리운 정 잊을 수 없구나.
세상에는 이별이 쉬지 않고
평생 배워도 깨달음이 늦는구려.

가을 물처럼 맑은 정신 지니셨던 어머니
머리 허연 늙은이로 변한 지 오래네
고향 산에는 그리운 님 맞이할 날도 멀지 않았다네.
어머니의 아름다운 향기 달아날까 두려워 안고 살아가지만
천지 같은 은혜 나이 들어보니
세상에 큰 죄가 불효인 것을 알아가네.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나의 어머니 오로지 단 한 사람
어머니 품에서 잠들고 놀며 자랐는데
이젠 어느 품에서 놀며 잠들라고 떠나시나요!

어머니 먼 길을 떠나시고

어머니 어디쯤 가시나요
먼지 없는 만리 맑은 곳으로 떠나가신 어머니
몸도 맘도 엷매이지 않는 곳, 한창 여행 중이시리라.
눈 깜짝할 사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지는구나.
식탁 맞은편에
항상 어머니께서 앉아 계셨는데
이젠 빈 의자만이-

가로수 밑을 걷다가도
어머니 부르면 나뭇잎이 떨어질 것만 같다.
어머니의 대답이려니-
어머니는 유일한 나의 친구였는데,
어머니께서 불효자 옆방에 寄居하시니
매일 만날 수 있어 좋았는데.

世の中は 娘が嫁と 花咲いて¹⁾
嬢としてぼんで 婆と散りゆく

이 세상은 처녀가 새색시로 시집가서
아내로 살다가 노파로 사라져 간다.

誕生日は 母苦難の 日²⁾
諸人よ 思い知れかし
己が身の 誕生の 日は 母苦難の 日

모든 사람들이여,
깨달을지라.
나의 생일은 어머니의 고난일
자신이 태어난 날은 어머니께서
당신을 출산하기 위하여 고초를 겪으신 날이다.

1) 高田好胤의 母 p.45 高田好胤의 母는 父母恩重經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愛情을 支撐하여 오면서 成長했던 著者가 父母恩重經에 따라 人間愛의 源泉인 어머니와 자식의 情愛(귀여워 함)와 그 存在 本然의 姿勢, 그리고 마음을 말하고 있다. 古語로 된 책으로 많은 사전을 사서 번역하며 읽어 보았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2) 高田好胤의 母 p.57

어머니

290일이 지난 현재도 무기력한 나날들이
고문처럼 계속되고 있으니
어머니의 늙음과 죽음을 통하여
생생히 최후의 순간,
어머니와 이별이 내 심장에 각인되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효를
어머니의 영전에 눈물을 쏟아내야 하는
모자의 인연을 짊어 글로
泣血歌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올리는 불효자의 泣血歌

고향 금성산에 殘雪이 녹듯 어머니 떠나시다.
백세까지라도 살아 계셨으면 하였던만 어머니 육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머니께 수없이 무례와 악행을 어찌하오리
남들의 부모상을 접하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들이 올 텐데 마음 졸이며.
편안하게 어머니의 잠든 얼굴에 가까이하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고하며,
보이지 않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걸을 수 없는 어머니의 임종의 현실
저승으로 먼 길을 떠나시는 어머니, 입관, 운반, 냉동의 기다림
입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어라
어머니 배웅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의 눈물에 어머니의 인품을 알게 하시네
사는 사람, 먼 길을 떠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시비가 엇갈리는 아름다움이어라
입관을 끝내고 다음 날 아침 효령동으로 떠날 준비 중인 어머니의 운구차

출관의 아침, 5월 21일 그 날은 어머니와 최후의 동행이었다.
 아무튼 밝게 떠나 보내드리려 눈물을 가급적 흐르지 않도록 애써 참아본다
 이젠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어
 불효자 이름을 사용할 일 없으신 어머니의 여행
 꿈에서밖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니, 빈 마음에 공허만이 맴돌다.
 가을들관에 어머니 모습 그리워하며 잠자리 날아다니는 논두렁길을 걸어본다.
 만개한 매화꽃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이젠 작은 그림 속에 계신다.
 徹夜의 밤, 잠들어버린 不孝子를
 어머니시여, 꾸짖어 주련만 꿈에라도 나타나시어
 두암성당의 煉禱(연도)를 안고
 효령동으로 떠나시는 어머니를 슬프다고만 할 수 없으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이신 사람은 단지 한 사람 柳明順 임이테레사이어야만 합니다.
 〈母 柳明順 임이테레사 1923.10.12.-2015.05.21. 02:05〉

孝婦³⁾

羅州鄭長勉妻高興柳氏襄靖公濕后植明女
 天性純孝하야 誠養舅姑하야 得新物하면 必歸而獻之하고
 姑病에 侍湯하야 暫不離側五年하고 夜則祈天하다

어머니와 같은 연배의 사람이 여행계획을 세우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머니와 동
 년배의 부부가 걷고 있을 때, 어머니보다도 더 많은 노부부가 휠체어를 타고 자식과

3) 羅州鄉校誌-檀君紀元 四三二六年 癸酉 三月 一日

건고 있을 때도, 홈플러스 상품을 볼 때도, 철 따라 계절을 느낄 때도 눈에 들어오는 것 모두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버린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계절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이 피었는데, 어이하여 어머니께서는 안 계시는지요! 아직 함께 있고 싶은데, 어머니!

끝으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집에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다.

생전에 어머니의 지인知人 친구나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방문訪問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대문大門의 벨이 울리지 않는다. 친척親戚의 전화도 모두 단절斷絶되어 버렸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어 이제 10개월 지나는데 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멀리 자꾸자꾸 멀리 가 버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미지근했던 어머니의 얼굴이나 손이 점점 차갑게 되어 가는 기억記憶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 잊을 수 없다.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세상世上을 떠나신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효도孝道와 불효不孝를 떠나, 함께 남보다 더 오래 지속持續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幸福한 불효자不孝子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나의 개인홈페이지에 올려 음악과 함께 추모의 정을 쏟고 있는 중이다 (<http://aro0513.narun.net>)

不肖子 昶璿 泣血 謹識

종보宗報 발행의 의의意義



호남종친회 고문
대중회발전연구지도위원

鄭 六 衍

추원보본追遠報本과 송조상문崇祖尙門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도리道理이며 사람의 대절大節입니다.

발원發源 없는 강江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람도 조상이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만물에는 근원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여가를 선용, 종보를 애독하여 종보 발행의 의의意義를 알고, 후손으로서 자기의 뿌리를 알고 조상祖上님들의 훌륭한 행적과 정신을 본받아서 교훈 삼아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 종보를 애독(숙독)하여 자기의 뿌리를 알고 조상님들의 훌륭한 행적과 정신, 선행善行과 덕행德行, 강상충효綱常忠孝와 화친돈목和親敦睦, 유풍遺風과 유적遺蹟, 유덕遺德과 유훈遺訓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종사 발전에 힘쓰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핏줄 한 자손, 일가一家는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는 것을 머릿속 깊이 심어주고, 송조崇祖, 효제孝悌, 애족愛族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또한 훌륭한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하며, 타씨족他氏族이 본받을 수 있는 명문名門이 되

도록 노력하게 하며,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그 정신 이어 받아서 훌륭한 후손이 되게 한다.

2. 후손들이 조상님들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효심을 길러주어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3. 일가一家들의 동정과 주요 정보, 종무宗務와 문사門事 유공자, 공적사례, 효행사례, 선행사례, 성공사례, 자녀교육, 건강생활, 법률상식, 일상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며, 화친和親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4. 종보는 오늘날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인성교육, 전인교육에도 도움이 되며,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도움이 된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풍遺風과 유적遺蹟, 유덕遺德과 유훈遺訓, 강상충효綱常忠孝와 화친돈목和親敦睦을 후손들에게 천추만대 길이길이 전하여 가문의 명성을 드높이도록 합시다.

※ 강상綱常 : 강綱은 삼강三綱=군위신강君爲臣綱, 부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며, 상常은 상五常=부의父義, 모자母慈, 형우兄友, 공弟恭, 자효子孝이다.

※ 종회宗會와 자신自身の 발전을 위해 종보 원고를 제출해 주시고, 종보를 애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안동에 있는 서원書院 및 정자亭子



호남중친회 회장
대중회발전연구위원
鄭 遇 華

호남湖南의 3대 명촌名村으로 이름 높은 금안동金鞍洞은 나주시羅州市에서 영광靈光 쪽으로 6km쯤 가면 금성산錦城山 북쪽자락에 금안동 12동네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이 바로 영암靈巖의 구림鳩林, 전북全北의 태인泰仁과 함께 호남의 3대 명촌으로 꼽혔던 금안동이며 옛 나주목羅州牧의 3대 명촌으로는 금안동과 다시면의 회진會津, 지금은 영암 땅이 되었지만 신북의 모산리茅山里로 『금성읍지錦城邑誌』(1897년 발간)에 기록되어 있으며 금안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금안동은 나주 북 15리에 있으며 고려 때 설재雪齋 정선생鄭可孚臣이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원元 나라에서 벼슬하고 지위가 재상宰相에 이르러 금안백마金鞍白馬로 귀향歸鄉하셨기에 동네이름을 금안동이라 하였다.

창주공滄洲公께서는 금안동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곳은 산세山勢가 좋고 물이 맑으며 나무가 우거지고 시내가 깊으니 이는 마을의 형세形勢요, 시서詩書에 독실篤實하고 농사農事와 누에치기에 부지런함은 이 마을의 풍속風俗이다. 쌍계정雙溪亭의 아름다운 경치와 두 못의 모습은 주진촌朱陳村을 방불케 하며 무릉도원武陵桃源과 흡사하다. 인심이 어질고 풍속이 아름다우니 란정수계蘭亭脩禊(중국의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 등 많은 명사들이 란정에 모여 주연을 베풀고 시詩를 읊던 모임)가 아니면 속세를 떠나 놀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청담清談을 숭상할 뿐이로다. 문인재사文人才士가 전후하여 이어지니 가히 문헌文獻의 마을

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누대累代를 살아오며 한 지역에 서원書院과 사우祠宇가 이토록 많이 보존된 지역이 드물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 서원書院

1) 설재서원雪齋書院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649번지 영안마을 뒤쪽 한적한 곳에 동향東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서원은 설재雪齋 정가신鄭可臣(1224~1298) 선생을 모시기 위해 1688년(숙종14)에 세워졌으며, 호조판서戶曹判書 정초鄭初,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신장申樞, 병조판서兵曹判書 정식鄭軾, 묵재공默齋公 정눌鄭訥, 일헌공逸軒公 정심鄭謙, 창주공滄洲公 정상鄭詳, 경원도호부사慶源都護府使 정여린鄭如麟, 죽우당竹友堂 정란鄭瀾을 추배하였다. 음력 9월 25일에 유림행사儒林行祀가 이루어지며 도유형문화재道有形文化財 제93호로 지정되었다.

2) 경렬사景烈祠

-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인천仁川 마을에 있다.

고려 말에 삼도관찰사三道觀察使를 지낸 정지鄭地 장군의 사당으로 1914년에 세워졌으며 유림행사를 한다.

3) 송산사松山祠

-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757번지 송정마을에 있다.

석전石田 이병수李炳壽 선생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이민선, 나병집, 신동욱, 임언규, 정우익 선생을 추배하고 매년 2월 26일 유림행사를 한다.

4) 경현서원景賢書院

-이 서원은 나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조선유학의 정통을 대변하는 대학자들을

배향하고 있으며,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영안 마을 589번지 산기슭에 있다. 이 서원은 원래 김굉필(金宏弼, 1454~1504)선생을 모시기 위해 나주시 서문 밖 대곡동(지금의 경현동 근처)에 있었으나 1589년에 김굉필 외에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기대승(奇大升), 김성일(金誠一) 선생들을 추배했다.

1868년에 훼손(廢撤)되었다가 1977년에 영안마을로 옮겨왔으며 음력 2월 15일에 유림행사를 한다.

5) 월정서원(月井書院)

-이 서원은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광곡(光谷) 마을 378번지에 동남향(東南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서원은 본래 나주시의 남쪽 입구(지금 상담비(嘗膽碑)가 서 있는 곳)에 있다가 1868년에 훼손(廢撤)되었으나, 1974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1659년에 박순(朴淳, 1523~1589)의 학덕을 추모해 세웠으며 김계휘, 심의겸, 정철, 홍천경 선생이 추배되었다. 매년 음력 3월 6일 유림 행사를 한다.

위의 서원이나 사우는 금안동에 건립된 연대순으로 기록했음을 밝혀둔다.

2. 금안 동에 있는 정자(亭子)와 재실(齋室)

1) 쌍계정(雙溪亭)

-쌍계정은 금안리의 수각(水各)마을에 있다.

고려 충렬왕 6년 무렵(1280년) 나주정씨의 금안동 정착선조인 설재 문정공 정가신(鄭可臣) 선생이 창건했다고 한다. 고려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서 강학하였다. 쌍계정은 7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은 전란 중에 불타고 1601년 이후의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쌍계정의 현판은 한석봉 선생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고 1973년에 전남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음력 4월 20일에 수계를 한다.

2) 태평정(太平亭)

관풍정 觀豊亭이라고도 했으며 지금의 태평사 근처에 설재공이 지었는데 소실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3) 영모재 永慕齋

-영평리 영안 마을에 설재서원과 함께 있으며 병조판서 정식 鄭軾의 재각이다.

4) 어서각 御書閣

병조판서 정식 鄭軾 선생에게 세종대왕이 주신 두 차례 수찰 手札을 봉안 奉安했다.

5) 영당 影堂

병조판서 정식 鄭軾 선생이 온천행궁 溫泉行宮에 불이 났을 때 세조 世祖 임금을 불 속에서 구해낸 큰 공을 기리기 위해 왕이 내린 영정 影幀을 모셨다.

6) 귀래정 歸來亭

-금안리 인천 仁川 마을에 있다. 일헌공 정심 鄭諶(1520~1602)을 기리기 위해 일헌공과 후손들이 지은 정자이다.

7) 척서정 陟西亭

-금안리 인천 마을에 경렬사 景烈祠와 함께 있다. 1915년에 척서 정해일 鄭海鎰 (하동인)이 건립하였다.

8) 효사재 孝思齋

-금안리 광곡 마을 394번지에 있다. 1915년에 하동정씨 후손들이 지었다. 15세 손 찬수가 쓴 현판과 윤항식 尹恒植이 지은 효사재기 孝思齋記가 걸려 있다.

9) 영사재 永思齋

-금안리 광곡 마을 제1저수지 밑에 있다. 1918년에 금안동 풍산홍씨 정착선조인 홍수洪樹의 시제를 모시기 위해 지었다.

10) 만향정 晩香亭

-영평리 영안 마을에 있다. 1919년에 서흥인 김종섭金鍾燮이 건립한 정자이다.

11) 영수각 永受閣

-영평리 영안마을 북동에 있으며 서흥김씨의 문각이다.

12) 서륜당 敍倫堂

-금안리 반송마을에 있다. 1921년에 지었으며 풍산홍씨의 문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주정씨는 설재雪齋 문정공文靖公께서 금안동에 터를 잡은 후 그 자손들이 약 700년 동안을 연면히 이어서 살아오고 있으며 뒤에 금안동에 들어온 서산정씨, 고령신씨, 풍산홍씨, 하동정씨, 창영성씨, 여산송씨, 서흥김씨 등은 모두 직간접으로 나주정씨와 인연을 맺고 금안동에서 살았다. 곧 정계함, 이수중, 신장은, 설재공의 3세손인 정초, 정유, 형제분의 사위이고 성유수, 송극창은 정초의 손서다. 정계함鄭繼咸은 풍산인 홍수洪樹와 하동인 정서鄭鋤를 사위 삼아 그 자손들이 금안동 4성씨 중 2성을 이루게 했고 풍산인 홍수는 서흥인 김감金鑑을 손서로 맞아 그 자손들이 금안동의 4성을 이루게 한 것이다.

금안동 4성씨는 각기 화려한 문벌을 자랑하면서 800여 년 동안을 한 터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

* 자료정리에 도와주신 성암 정길회省菴 鄭吉會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자 孔子의 구용 九容과 구사 九思



호남종친회 고문
대중회발전연구지도위원

鄭 六 衍

학문 學問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마음을 정성껏 가꾸고 올바른 도道를 행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세속 世俗의 자질구레한 잡된 일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뒤에라야 그 학문이 비로소 튼튼한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 孔子는 “충성된 마음과 신용을 주장으로 하라.”고 말했다.

자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습하는 데에는 구용 九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또 학문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데에는 구사 九思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공자의 구용 九容은 무엇인가?

첫째 족용 足容이니, 발은 무겁게 눌러야 한다.

이것은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른 앞에 불러나갈 때에는 여기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둘째 수용 手容이니, 손은 공손히 눌러야 한다.

손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말라는 말이다. 만일 아무 할 일이 없을 때는 마땅히 두 손을 한데 모으고 있을 것이며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셋째 목용단(目容端)이니, 눈은 단정하게 떠야 한다.

눈을 정당하게 가지라는 말이다. 무엇을 쳐다볼 때에는 동자를 바르게 뜨고 옆으로 흘려보거나 결눈질하지 말라는 말이다.

넷째 구용지(口容止)이니,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입을 항상 오므리고 있으라는 말이다.

다섯째 성용정(聲容靜)이니, 목소리는 조용하게 내야 한다.

언제나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고 기침이나 하품 같은 잡된 소리는 내지 말라는 말이다.

여섯째 두용직(頭容直)이니, 머리는 곧게 가져야 한다.

머리를 바르게 갖고 몸은 꼳꼳하게 가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돌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기용숙(氣容肅)이니, 기운은 엄숙하게 가져야 한다.

숨 쉬는 것을 조화롭고 부드럽게 해서 호흡하는 소리를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입용덕(立容德)이니, 서 있는 것은 덕이 있어 보이도록 반듯하게 해야 한다.

가운데에 서서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엄연히 덕이 있는 기상을 나타내라는 말이다.

아홉째 색용장(色容壯)이니, 얼굴빛은 씩씩하게 가져야 한다.

얼굴빛을 항상 정제하고 게으르거나 거만한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는 말이다.

공자의 구사(九思)란 무엇인가?

첫째 시사명(視思明)이니, 물건을 볼 때는 밝은 것을 생각하라.

보는 데에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으며 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둘째 청사총(聽思聰)이니, 소리를 들을 때는 귀 밝은 것을 생각하라.

소리를 듣는데 아무것도 막히는 것이 없고 보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없게 된다.

셋째 색사온(色思溫)이니, 얼굴빛은 온화한 것을 생각하라.

얼굴빛을 화평하게 갖고 조금도 화를 내거나 사나운 기색을 갖지 말라는 말이다.

넷째 모사공(貌思恭)이니, 몸 모습은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
 한 몸뚱이의 모습을 언제나 단정하고 씩씩하게 갖도록 하라는 말이다.
 다섯째 언사충(言思忠)이니, 말할 때에는 충성된 것을 생각하라.
 한마디 말도 충성되지 못하고 신용 없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여섯째 사사경(事思敬)이니,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일을 할 때에는 무엇이나 공경하고 삼가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일곱째 의사문(疑思問)이니,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물을 것을 생각하라.
 자기 마음에 의심이 나면 반드시 선각자(先覺者)를 찾아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갖지 말라는 말이다.
 여덟째 분사난(忿思難)이니, 분이 날 때는 어지러운 것을 생각하라.
 마음을 자기 스스로 경계해서 이치로 타일러 이겨 참도록 하라는 말이다.
 아홉째 견득사의(見得思義)니, 얻는 물건이 있거든 의리를 생각하라.
 재물 앞에서는 반드시 의리를 따져서 분명히 하고, 이 의리에 맞은 연후라야 비로소 그 재물을 갖는다.

위에 말한 구용(九容)과 구사(九思)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자기 몸을 살피고 한시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거처하는 자리 옆에 이것을 써 붙여놓고 때때로 이것을 눈여겨보도록 하라.

예(禮)가 아니면 눈으로 보지를 말라. 예가 아니면 귀로 듣지도 말라. 예가 아니면 입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이 네 가지는 곧 자기 몸을 닦아 나가는 요점이다(격몽요결 지신장 중에서).

※ 가정을 지키는 기본 조건은,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도에 있다. 양심이 바로 서야 사랑과 효가 바로 서고, 사랑과 효가 바로 설 때 가정이나 사회에 평화의 질서가 확립된다.

※ 가정교육 바로 해야 학교·사회교육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

인생팔미 人生八味



호남중친회 회장
대중회발전연구위원

鄭 遇 華

나이 70에 그 이치를 비로소 통달하니,
70에 이르면 공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하여
중심소욕불유구 從心所欲不踰矩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 70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70을 흔히 ‘고희古稀’라고 부르는데,

이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곡강시曲江詩에서 유래된 말이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천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안타
까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맛, ‘인생팔미’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얻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사는 인생팔미,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일상적
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팔미 人生八味’를 새기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의 파란선

호등이라 여기며 소개합니다.

- 일미一味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음식의 맛’이 그것입니다.
- 이미二味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직업의 맛’이 그것입니다.
- 삼미三味는 남들이 노니까 노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류의 맛’이 그것입니다.
- 사미四味는 어쩔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 만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이 그것입니다.
- 오미五味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이 그것입니다.
- 육미六味는 하루하루 배우며 사는 인생이 아닌, 늘 무언가를 배우며 자신이 성장해 감을 느끼는 ‘배움의 맛’이 그것입니다.
- 칠미七味는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느끼는 ‘건강의 맛’이 그것입니다.
- 팔미八味는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간의 맛’이 그것입니다.

통 통,
통! 통! 통!



대중회 총무국장

鄭 三 童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건배사가 빠지지 않는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 같이 잔을 높이 들고 외치는 건배사는 약방에 감초처럼 우리 음주문화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건배사가 없는 자리는 싱겁고 왠지 맛이 나지 않는다.

재미있고 재치 있는 건배사는 주위의 웃음과 함께 모임의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게 한다. 비교적 술을 좋아하는 나 역시 멋있고 분위기 있는 건배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첩에 열심히 적기도 했던 기억이 아른거린다.

그런 건배사들 중에 지금도 가끔 씌먹곤 하는 “통, 통” 하고 선창하면 온 좌중이 통! 통! 통! 하고 복창하여 한껏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던 ‘통통 통통통’이 떠오른다. 그 뜻은 이렇다.

첫 번째 통은 새해에는 행운이 넘치게 운수대통,
두 번째 통은 모든 일에 막히는 것 없이 만사형통,
세 번째 통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자는 의사소통,
네 번째 통은 매일 웃으면서 살자는 요절복통,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통은 무엇인가?

바쁜 세상, 자주 못 보면 전화라도 한 통씩 하며 살아가자는 ‘전화 한 통’이란다.

선창한 ‘통, 통’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이 얼마나 좋은 말들인가. 허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뒤에 외친 세 가지 ‘통통통’은 우리가 노력하면 실현 가능한 것이며 생활에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통이 아닐까?

“의사소통”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 어디서든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각종 세미나, MT 등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들 있으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내가 느낀 우리 나주정씨의 성품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강직하고 곧아서 쉽게 사귀기가 힘든 것 같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의사소통에 필수 조건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의사소통을 강하게 요구하며 필요로 하는 요즘 시대에 좀 더 노력하여 자기의 의견을 마음속에만 담아놓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여 모두가 다 사회의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요절복통”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 종친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는 요절복통의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해 본다.

“전화한통”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마저 멀어진다고 했다.

요즘은 문자나 카톡 등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전화 한 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아무 때고 마음 편하게 전화 할 수 있는 사이, 우리 종친 간에 전화하기 운동이라도 펼쳐보면 어떨까요?

종친 여러분, 우리 대종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可字 臣字 할아버님의 후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고 나도 모르게 정이 끌리는 종친 간에 좀 더 화합하고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대종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상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아주 잘 갖추어진 우리 나주정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짬을 내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심도 가져주시고 더욱 알찬 내용을 위한 의견도 올려 주십시오.

우리 나주정씨는 고려 중엽부터 근 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고려15대성가로 훌륭한 조상님들께서 국가의 커다란 기둥으로 이바지해 온 전통명문 가문으로서 현재도 1955년 그 어려운 시절에 대종회(화수회)를 조직하여 금년에 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 왔으며, 종보를 발행하고 자라나는 꿈의 미래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씨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28대 정철준 회장님께서서는 대종회의 모든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하여 장학회로 지원하고, 종친님들께서 성의껏 내주신 성금을 우리 종친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다하시니 더욱 기대가 큼니다.

우리나라 본관 성씨의 통계를 보니 333성씨 본 중 우리 나주 정씨는 86위로 93,845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현재는 비록 10만에 못 미치는 종친이지만 앞으로 더 융성하고 번창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대종회 총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맡고 보니 종사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40여 년의 공직생활에서 경험했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노력하겠다는 걸 다짐하고, 특히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친 간의 의사소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종친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바라면서 회장님이 뜻하고 계시는 종친 간에 서로 화합하고 미래를 위하여 일하는 대종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다 보니 문맥도 잘 맞지 않고, 감히 글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종친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임기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대종회발전연구위원 간사
逸軒公15世孫

鄭 昺 璿

2006년 9월 16일 광진구 문화예술원에서 대종회 홈페이지 시연회가 있었으며, 그 시간 이후로 불민不敏한 제가 스스로 하드웨어 속에 알곡을 채우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하나 둘씩 준비해 나갔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주정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지 하고 두껍고 낡은 보첩譜牒 속에 묻혀 있는 선세기록과 자손록을 밖으로 내어 종친화목, 일가, 방계 가족들의 구성이 방안지에 칸을 긋고 나누어 인명人名을 넣는다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발전연구위원이라면 뭔가 그 직책에 맞는 실적을 남겨야 할 것이 아닌가. 직업이 토목을 전공한지라 평소 컴퓨터를 독학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비를 연산하면서 연구하며 시행착오를 많이도 겪어 왔기에 뭐든 시도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줄을 긋고 칸을 나누어 그 작은 사각형 속에 한글, 한자, 각종기호 등을 넣어 갔다. 그렇게 칸을 메워나가다 보니 1224년 이전부터 현세에 이르도록 선조님께서 보첩 밖으로 나와 활동하심을 보고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보화시대의 활기찬 영역 안에서 선조님들의 빛나는 위업을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게 되면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찾아 익혀 나갔다.

그리하여 전 종원의 선조 사랑과 뿌리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일차적으로 신미보 자손록을 완성하여 하드웨어의 방 한구석에 상

계만 볼 수 있는 목록에 인터넷계보를 링크함으로써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첩을 열어 자신과 가문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첩에 상계는 시조에서 13세로 도표화 되어 있으나 인터넷 계보에서는 14세 이후까지 신미보 전 자손록을 포함시켜 종원들께서 더 쉽게 파계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계까지는 타이틀 링크로 커서 접촉 시 생줄 및 배위까지 보첩 그대로 작성하여 올려 놓았다.

우리 모두 승조정신과 애종심을 발휘하여 위로는 선조님을 정성껏 섬기고 부모에게는 효성을 다하며 일가 간에는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가문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중회 홈페이지는 다른 성씨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영상자료들을 만들어 음악과 함께 구성해 놓았으며 특히 자손록과 선세기록 등 1,000여 곳에 동시에 알림 및 음악이 바뀌어지게 만들어 놓았다.

대중회 홈페이지는 오정의 계과 종종 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공유하지는 데 뜻이 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를 꾸준히 발전시켜 우리의 빛나는 전통과 자부심을 담아 놓아야 할 것이다. 나주정씨대중회 홈페이지는 당당히 어떤 사이트와 비교해 봐도 훌륭한 사이트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과 아울러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미보의 전 자료를 사이버공간에서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행장, 효열부, 묘갈비 등이 내용과 휘만 기록되어 있어 계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대한 밝혀 두었다.

오늘 현재 162,000명 종친들께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셨으며 또한 전국에서 뿌리를 알고 싶어 전화를 주시는 등 좋은 결과들을 알아 갈 때 관리자 겸 계보를 만든 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틈틈이 종사에 임하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십만 종친 여러분께서 동참하시어 문정공文靖公의 아름다운 후예답게 언행에 주의하여 사랑과 존경尊敬 받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홈페이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9년 동안 일하면서 함께 뿌리교육 교안을 서로 작성하는 등 나에게 너무나 많은 감명과 애중심을 일깨워준 야석野石 광훈光勳께 감사드리며 조부祖父님의 DNA를 이어 받은 탓인지 글과 애중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석野石의 조부祖父님께서는 많은 유편遺編을 남기셨으며, 다천시고茶泉詩稿에 “겸산謙山 이선생李先生께서 금성산錦城山에서 도道를 강론하자 따르는 자가 한 고을을 기울게 할 정도였고 대부분 영준英俊한 선비들로 높은 지식과 두터운 행실로 사우師友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중 우리 다천茶泉 정공鄭公께서 그 첫 번째였다.”

그리고 선대인先大人께서도 한평생 후진양성을 위해 교육에 몸담았으며, 야석野石께서도 나주 노안에 금계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나주정씨羅州鄭氏 종문宗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獻身奉仕하고 있다.

『금경록金鏡錄의 창』에서 배우다



일재공파 17세손
단국대학교 3년

정 성 애

저는 단국대학교 1학년 과정 중에 ‘나주정씨뿌리찾기’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교육 참가 당시 저의 조상님 중 고려시대 문정공 어르신에 대해서 얼핏 듣고 다른 교육에 참여하느라 문정공 어르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금경록의 창』에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읽을 기회가 생겨서 좀 더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문정공 어르신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려시대라고 해서 고려 전기 왕건시대에 계셨던 분인가 생각했지만 무신정변으로 문신이 무신에게 고통 받고 대외적으로는 몽골에게 나라를 유린당하는 혼란한 국가시대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고려가 몽골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매우 필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압박감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 문정공 어르신처럼 학업에 열중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하의 문장으로서 국자감에 들어가 당시 원나라와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리가 되었다는 점을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저의 경우 대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바친 것도 굉장히 버거웠는데, 국자감에서 9년 동안 학문에 열중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으며, 대학교에서 하는 작은 발표도 굉장히 떨면서 하는데 반해, 선조이신 문정공께서는 원나라의 왕과 협상을 통해 당시 고려의 식량난을 줄이는 동시에 많은 물자를 후원받는 등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의 나이가 25살인데 30대 초중반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이신 선조님의 업적을 보면서 과연 제가 같은 나이에 이에 비교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국가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나라의 미움을 얻는 경우 국내정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원나라를 나라의 대표로 나가서 협상한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감이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우리나라의 사정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설득해 낸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대단히 아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를 위해 국가의 위기상황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과 백성들의 노역이 심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왕에게 직접 간청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글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선조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분을 조상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 또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글에서 보면 은퇴하기로 마음먹어 왕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은퇴를 조금 더 미루어 달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시 왕에게 매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황희 정승이 그만두는 것을 막은 것처럼 저의 선조이신 문정공이 왕의 신임을 높게 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이지 국가에 필요한 인재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나라나 다른 조직에 들어가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상대방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능력과 업적이 있어야 할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신하를 부리고 있는 왕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정공 어르신이 정말로 특출 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경록의 창』에서 기술해 놓은 것처럼 문정공 어르신께서는 뛰어난 능력으로 주변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언제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가 위협에 빠져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보이신 문정공 어르신의 후예인 저 정성태는 문정공 어르신의 자손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앞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언제나 사람들과 소통해서

일을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주변사람들을 이끌려고만 했는데, 이 때문에 책임감이 높아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일을 같이 진행하는 인원들과는 갈등이 매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성격이 좋은 결과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정공 어르신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저의 행동을 고쳐야한다고 느꼈습니다. 원나라의 왕과도 협상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임을 얻어 실질적으로 나라에 많은 지원품을 받게 한 일을 보고 저는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꾸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여, 앞으로는 일을 진행함에 행동과 말로 그들의 신임을 먼저 사고, 일을 해결해감에서는 갈등을 최대한 조율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예로 든다면, 먼저 학과생활을 하면서 학교 동기, 후배,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신임을 얻고, 후에 과제나 대외활동을 할 때 그들의 의견을 듣되, 저의 의견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정공 어르신의 경우 고려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셨는데, 앞으로 저 또한 여러 일을 하면서 문정공 어르신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경록의 창』에 있는 내용으로는 문정공 어르신의 모든 업적을 알 수 없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문정공 어르신의 업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저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주정씨의 일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을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정공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조상님의 업적에 대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大宗會 消息

제61회 羅州鄭氏大宗會 定期總會 時 찬조하신 분

연번	성명	주소	금액	비고
1	정광훈	경기화성시동탄면방교리740-29호	1,540,000	대종회장기념타월(찬조)
2	정영무	송파구방이동88올림픽선수촌218-507	1,000,000	대종회 부회장
3	정대규	서울관악구봉천본동1708두산107-405	200,000	서울총회장
4	정우화	광주광역시남구진월동249대주@101-905	100,000	호남총회장
5	정내혁	광주광역시 호남총친회 부회장	100,000	대종회 이사
6	정성면	전남 나주시 노안면 만호길 20-12	100,000	010-3675-8308
7	정영주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770-7호	100,000	전 호남총친회장
8	정병준	광주광역시산정동중흥S클레스102-405	100,000	총친
9	상주문경	상주,문경총친회 일동	100,000	총친
10	정종근	광주광역시광상산구소촌동537-17	100,000	010-6647-2147
11	정종인	전남함평군나산면석지길73	100,000	대종회 자문위원
12	정정남	광주시남구효우로332-11, 106동 403호 (행암동 중흥S클레스)	100,000	대종회 이사
13	정병길	고양시덕양구고양동454우방유셀101-302	100,000	대종회부회장
14	정영춘	전남무안군청계면서호정12길7	100,000	발전연구위원장
15	정창규	서울시중구을지로5가8-5호	100,000	자문위원, 현대페인트

16	정병권	서울시강동구길2동322 우성@101-409	100,000	대중회 이사
17	정병용	광주시남구방림동 라인효친@208-608	50,000	010-5652-2620
18	정기현	광주남구주월1240-1신천@101-902	50,000	대중회 감사
19	정광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50,000	대중회 이사
20	정종기	경기도의왕시오전동281-2호	50,000	대중회 이사
21	정성연	전남나주시노안면영평리영안부락	50,000	종친
22	정한면	전남무안군해계면신정리404번지	50000	종친
23	정성운	금천구시흥동12-7, 107동405호	50,000	종친
24	정우학	동작구사당1동1050 보람빌라 103호	50,000	대중회 이사
25	정병춘	노원월계동18그랑빌@116-1304	50,000	대중회 이사
26	정진상	남양주시평내동113대주(아)1502-1501	50,000	종친
27	정의연	서울시도봉구쌍문동311번지 303호	50,000	서울중회 운영위원
28	정병선	광주광역시북구두암2동876-19호	50,000	대중회 발전연구 간사

設壇享祀 時(香燭代) 찬조하신 분

(2015. 4. 11.)

번호	성 명	주 소	금 액	비 고
1	정우화	광주시남구진월동대주(아)101-905	100,000	호남총회장
2	정영춘	전남무안군청계면서호정12길7	100,000	발전연구위원장
3	정군섭	광주시서구내방동838-14호	100,000	대총회 고문
4	정판면	전남나주시동강면병반길20-1	100,000	010-4199-5537
5	정 남	전남화순군화순읍압곡길 59	100,000	대총회 자문위원
6	정육연	광주시동구동명로44-2호(동명동)	100,000	발전연구지도위원
7	정상규	전남함평군월야면용월리31내세길	100,000	010-9657-1771
8	정경일	전남함평군월야면갈동길29-1	50,000	010-3645-1286
9	정광범	경기도평택시평택로17길	50,000	총친
10	정기현	광주시남구주월동1240신천@101-902	50,000	대총회 감사
11	정산옥	전남무안군몽탄면서호정길3-9	50,000	010-3605-5770
	합계		900,000	
정우화 호남총친회 회장님		정珠衍 지유공파 회장님		
정영춘 대총회발전연구위원장님		정무중 광주청장년회 회장님		
정송학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님		정진호 羅鄭會 회장님		
정영무 신한회계법인대표공인회계사		정성태 나주정씨 설재산악회장님		
☆.당일 향축대 및 화환으로 축하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재)나주정씨설재장학회 장학금 수상자 현황

연번	성 명	학 교 명, 주 소	학년	보호자	주 소
1	정다이 (여)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미 디어 멀티미디어학과	3	정중섭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나길 11, 302호(공농동)
2	정성태 (남)	단국대학교 행정복지대 학 사회복지학과	3	정이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4길16 (역삼동 832-33호)
3	정몽주 (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3	정상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 로53 (현대@ 105-1406호)
4	정하린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 어대학 로어과	3	정의석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174 146-501호
5	정성동 (남)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 학 경찰학과	3	정용기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95번지
6	정광철 (남)	선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3	정광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667번지

(재)나주정씨설재장학회 이사 연회비 납부현황

(기간 2015. 3. 1 ~ 2016. 2. 29)

연번	성 명	주 소	금 액	비 고
1	정광훈	경기도화성시동탄면방교리740-29	1,000,000	설재장학회이사장
2	정경일	전남함평군월야면양정리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3	정병남	경기성남시분당구장미로55번길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4	정광숙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6가	200,000	설재장학회 감사
5	정영주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6	정주연	전남함평군엄다면화양길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7	정창규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가1-8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8	정대규	서울특별시봉천본동1708번지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9	정준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1동	200,000	설재장학회 이사
10	정흥범	경기도화성시신남동	200,000	설재장학회 감사
	합 계		2,800,000	

(재)나주정씨설재장학회 출연금 납부현황

(기간 2015. 3. 1 ~ 2016. 2. 29)

연번	성 명	직 위	금 액	비 고
1	정준범	대총회 부회장	1,000,000	상서공파
2	정영주	대총회 발전연구위원	1,000,000	참봉공
3	정석우		1,000,000	대호군, 장학금수혜자

2016년 나주정씨대종회 포상자 현황

상별	인적사항		공 적 개 요
	성명	주소	
1 공로	鄭光勳 1946. 10.23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2, 214동 101호(공세동 탑실마을 대주피오레2단지) 010-6230-9103	2006년 제25대부터 2015년 제27대에 걸쳐 나주정씨 대종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종심으로 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특히 나주정씨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코자 2010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뿌리교육을 실시하여 3회에 걸쳐 128명을 배출하였고 ‘자랑스러운 羅鄭人價’ 제정과 정가신 할아버지 망제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설재장학회 출연금 및 연회비로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 추천자 : 정옥용(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번길 100 대림아파트 107동 502호)
2 공로	鄭玉容 1943. 12.14	서울특별시 강서구공항대로 39번길100 대림아파트 107동 502호 010-5743-4329	2006년부터 2015년에 걸쳐 나주정씨 대종회 총무를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 실천으로 대종회장을 보필하여 종회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특히 2010년부터 뿌리교육 실시와 정가신 할아버지 망제시 철저한 신원조회 및 부대와의 협력으로 많은 종친이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등 종친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 추천자:정광숙(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76 강변삼성레미안아파트 308동 1202호)
3 공로	鄭晷璿 1946. 5.13	광주광역시 북구동문대로 86번길 91-2 010-3605-9354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나주정씨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나주정씨 대종회에 기여하였고 특히 대종회 발전연구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나주정씨 인터넷 세계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신미보 전 자료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모든 종친이

				<p>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종회 행사시 사진촬영 및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종친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p> <p>추천자: 정옥용(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번길 100 대림아파트 107동 502호)</p>
4	공로	<p>鄭容穆 1939. 1. 9.</p>	<p>세종특별시 금남면 뱀너머원 당길 59-19</p> <p>010-7253-2272</p>	<p>나주정씨 부여 종친회 총무를 1999년부터 수행하면서 2000년에는 대종회 이사로 활동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여종친회 회장으로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선산가꾸기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p> <p>추천자: 정상태(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97-202호)</p>
5	장한 어머니	<p>丁明子 1948. 8. 4. (정병열의 처)</p>	<p>전남무안군 청계면 기동길 247</p>	<p>천성이 인자하고 효성이 남다르며 근면성실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부모와 친부모님을 온갖 정성과 효심으로 극진히 봉양하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여 2남 1녀의 자식을 훌륭히 길러 사회의 역군이 되게 하였고 성실한 책임감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현모양처로 타의 귀감이 됨</p> <p>추천자: 정영춘(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정길 12-7)</p>
6	효부	<p>김미령 1967. 11.29 (정석규의 처)</p>	<p>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166 성우행복한@ 202-1205</p> <p>010-8147-5361</p>	<p>시골의 어려운 가정에서 부부 공무원으로 남편의 내조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 낙상으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는 홀시아버지를 2016년 사망시까지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주위의 칭송히 자자함</p> <p>추천자: 정병현(전남 함평군 월야면 내세길 84)</p>

羅州鄭氏大宗會 歷代 會長 名單

- 1代 1955-1956
26世 熙勉 字海國 號慕堂 少尹公諱佶派 逸軒公諱謙 將仕郎公諱如漢系圖-21世基復...
- 2代 1957-1958
25世 遇燮 字基燮 號雪湖 少尹公諱佶派 終慕齋公諱履常派系圖-21世溫三...
- 3~4代 1959-1962
28世 東衍 字德潤 號龍亭 指諭公諱億派 棄齋公諱薰派 逸齋公諱以殷派系圖-21世亨著...
- 5代 1963-1964
25世 遇璣 字士一 號錦崗 少尹公諱佶派 滄洲公諱詳 從仕郎公諱如龜系圖-21世國泰..
- 6代 1965-1966
27世 炳達 字明福 號佳山 指諭公諱億派 棄齋公諱薰派 海隱公諱以夏派系圖-21世光輔...
- 7代~11代 1967-1976
26世 良勉 字良奎 號醒齋 法名裕天 少尹公諱佶派 終慕齋公諱履常派系圖-21世奎弼...
- 12代~16代 1977-1986
27世 炳仁 字仁相 號錦樵 指諭公諱億派 棄齋公諱薰派 慕軒公諱以商派系圖-21世民達...
- 17代~20代 1987-1996
27世 炳基 號信明 指諭公諱億派 棄齋公諱薰派 逸齋司正公諱以殷派系圖-21世亨升...
- 21代 1997-1999
28世 載均 字君燮 號仁星 少尹公諱佶派 逸軒公諱謙 將仕郎公諱如漢系圖-21世基豐...
- 22代 2000-2003
26世 龜勉 一名龜大 號石雲 少尹公諱佶派 滄洲公諱詳 從仕郎公諱如龜系圖-21世國弘...
- 23代 2003-2004
27世 昺甲 字雄太 號誠齋 指諭公諱億派 棄齋公諱薰派 海隱公諱以夏派系圖-21世光孝...
- 24代 2004-2006
27世 昺浩 號省齋 少尹公諱佶派 逸軒公諱謙 司宰監公諱如海系圖-21世基灝...
- 25代~27代 2006-2014
27世 光勳 號野石 少尹公諱佶派 滄洲公諱詳 從仕郎公諱如龜系圖-21世國樞...
- 28代 2015-현재
28世 哲俊 號 指諭公諱億派 棄齋公諱薰派 海隱公諱以夏派系圖-21世光運...

발전연구위원회 조직

대 중 회 장 : 정철준(월탄 衍)

발전연구위원장 : 정우걸(창주 遇)

간 사 : 정병선(일헌 炳)

지 도 위 원 : 정병록(고정 炳) 정길희(창주 會) 정육연(빙헌 衍) 정영춘(월탄 炳)

발 전 연구 위 원 : 정우화(창주 遇) 정병주(월봉 炳) 정병현(고정 炳) 정기현(창주 炳)

정영주(참봉 衍) 정주연(월봉 衍) 정수일(추과 衍) 정광운(수사 廣)

정광주(목재 廣)

※ 대종회발전연구위원회는 2012년도부터 각 위원들이 10만원씩 출연,
경비를 충당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위원회 임무

(회칙 30조, 31조)

1. 대종회 발전 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2. 종보 간행 업무
3. 뿌리 찾기(족보) 사업
4. 시조제단관리 및 향사 관장
5. 청소년 교육사업
6. 홈페이지 관리

宗報 發刊 略史

편집실

호수	발행년 도	발행인	편집 위원장	편집 주간	편집위원	지도위원	표지 내용설명	인쇄처 인쇄인	지 면
창간 호	1996.4	정병기	정병록	정우근	정방면, 정우흔		신문형태	서울	8
2	1996.10	정병기	정병록	정우근	정방면, 정우흔		신문형태	서울	8
3	1997.3	정병기	정병록	정우근	정방면, 정우흔		설재서원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서울 정우화	32
4	1997.9	정군섭	정병록	정방면	정길희, 정육연		문정공 설재 정선생 유허비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시중동	예 찬 정재석	58
5	1998.4	정군섭	정병록	정방면	정길희, 정육연 정봉오		오산사 함평군 월아면 용월리	"	64
6	1999.4	정군섭	정병록	정방면	정길희, 정육연 정봉오, 정병주		세덕사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석지	"	56
7	2000.4	정군섭	정병록	정방면	정길희, 정육연 정봉오, 정병주		성향비 나주시 성향공원 내	"	76
8	2001.4	정구대	정군섭	정육연	정길희, 정병주 정우걸		쌍계정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수각	"	98
9	2002.4	정구대	정군섭	정육연	정길희, 정병주 정우걸		문정공 설재 정선생유허비 나주 노안면 금안리 입구	"	130
10	2003.4	정구대	정군섭	정육연	정길희, 정병주 정우걸		시조공 단소 전경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	102
11	2004.4	정병호	정길희	정육연	정병주, 정우걸 정영주		시조공 이하 삼세조 단비	"	116
12	2005.4	정병호	정길희	정육연	정병주, 정우걸 정영주		용연 중시조 문정공 정가신 선생 유품	예 원 김선식	128

13	2006.5	정병호	정길회	정육연	정병주, 정우걸 정영주		비자나무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652	”	128
14	2007.4	정광훈	정길회	정육연	정우걸, 정영주 정옥용		중시조 문정공 설재 정가신 존영	”	136
15	2008.4	정광훈	정길회	정육연	정우걸, 정영주 정옥용		송모단 전경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시중동	”	120
16	2009.5	정광훈	정길회	정육연	정우걸, 정옥용 정병선		월천사 유허 추모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20-6	”	128
17	2010.4	정광훈	정육연	정우걸	정병고, 정주연 정옥용, 정영주 정기현	병기,군섭 구대,병호 병록,사면 길회	중시조 설재선생 의 사실이 등재된 용비어천가82장 의 원문	”	128
18	2011.4	정광훈	정육연	정우걸	정영주, 정주연 정옥용, 정재석 정병복, 정기현	군섭, 구대 병호, 병록 사면, 길회	삼강문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촌리	”	128
19	2012.4	정광훈	정육연	정우걸	정영주, 정준범 정옥용, 정재석 정종연, 정기현 정병선	군섭, 구대 병호, 병록 사면, 길회	창주정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후석	”	170
20	2013.4	정광훈	정영춘	정병선	정영주, 정준범 정옥용, 정재석 정종연, 정기현	정길회 정육연	세모각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송충동	”	152
21	2014.4	정광훈	정영춘	정병선	정영주, 정준범 정옥용, 정재석 정종연, 정기현	정길회 정육연	고산재 전남 나주시 나주서부로 45	”	152
22	2015.4	정광훈	정영춘	정병선	정우화, 정준범 정옥용, 정종연, 정기현	정길회 정육연	학암재 전남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비학동	”	158
23	2016.4	정철준	정우걸	정병선	정우화, 정대규, 정삼동, 정기현	정병록 정길회 정육연 정영춘	효지정려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명화동 평지	”	128

始祖 壇祭 享祀

日時 : 2015. 4. 11. (음 2.23.) 토요일

場所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시조단

主催 : 羅州鄭氏大宗會

後援 : 各 門中

참석인원 : 약 150여 명

제관 분정기

초헌 : 우광 아헌 : 우현 종헌 : 정남

진설 : 일주 집례 : 수일 사축 : 종인

봉향 : 광인 봉로 : 용연 사준 : 효연

봉작 : 종근 전작 : 병해 찬인 : 병현

산신제 : 제관 : 주연, 축관 : 영춘

인사말씀 : 대중회발전연구위원장

崇慕壇 享祀

일시 : 2015. 11. 7. (9.26) 토요일
장소 :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시중동 승모단
참석인원 : 47명
주최 : 나주시 동강면 종친회
후원 : 대종회, 추파공(휘 필성)과 門中

祭官 分定記

초헌 : 영춘-무안	봉향 : 용무-동강
아헌 : 옥용-서울	봉로 : 상기-동강
중헌 : 광인-동강 봉동	사준 : 병길-동강
진설 : 팔연-동강 시중동	봉작 : 내혁-무안
집례 : 병현-함평 월야	전작 : 용귀-함평 월야
찬인 : 주현-함평	
축 : 관면-동강	산신제 : 공연-무안 엄다
	축 : 병두-무안 몽탄

인사말씀

정광인 : 동강종친회장	병후 : 추파공과 대표
영춘 : 발전연구위원장	우화 : 호남종친회 회장

地方宗親會 消息

湖南宗親會

1. 회의 및 유적지 답사

- 1) 2015년 2월 14일 이사회의 개최 33명 참석 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와 제33회 정기총회를 상록회관에서 실시키로 하였다.
- 2) 3월 13일 상록회관에서 임원 및 종원 63명이 참석 제33회 정기총회 실시.
- 3) 5월 29일 회장단 회의를 18명이 참석 제33회 총회 실시사항 결과 보고와 대총회 회장 선임에 관한 협의.
- 4) 9월12일 하반기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실적보고와 가을 유적지답사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고창 문수사로 결정하였다.
- 5) 10월29일 가을 유적지 답사 신청자 44명중 34명 참석하여 함평 국화축제와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및 충남 서천소재 국립생태원 답사.
- 6) 12월 12일 고문, 자문, 회장단, 이사 등 임원 송년간담회 실시하고 사무실을 대총회와 같이 사용키로 지난 이사회 결의 사항을 확정함.

2. 제34회 정기총회

- 1) 일 시 : 2016. 03. 11.(금) 10:00
- 2) 장 소 : 상록회관 3층(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147)
- 3) 참 석 : 61명
- 4) 안 건 : 15년 결산 및 16년 사업 및 예산승인

- 5) 2015년 회비와 성금 : 별지내역과 같음
- 6) 격려사 : 정 남 고문
- 7) 회장인사 (102쪽)



호남종친회 제34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2016.3.11. 상록회관/사진 : 병선)



호남종친회 유적지 답사 (서천국립생태원, 2015.10.29.)

〈호남종친회 정기총회 인사말〉

일가一家는 백대지친百代之親



호남종친회 회장
대종회발전연구위원

鄭 遇 華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안寧하십니까?

이제 희망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동강 물이 풀리고 땅속에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우수雨水와 경칩驚蟄도 지났는데 오늘은 꽃샘추위로 강산에 봄기운이 잠시 머물다 가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 호남종친회 제34회 총회에 차가운 날씨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니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나 고령高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熱과 성誠으로 참석參席해 주신 고문님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원거리遠距離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종친宗親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 생활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盛況을 이루어 주시어 감사感謝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不德하고 미숙未熟한 이 사람이 호남종친회의 막중莫重한 책임責任을 맡아 종친의 지도와 편달로 2년 동안 무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종친 여러분,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농경사회로 이웃과 더불어 품앗이하며 흥년이면 산과 들에서 채취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일가친척 그리고 이웃 간에 끈끈한 정이 넘쳐나는 추억이 있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만 불 시대에 살아가며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으나 핵가족 중심의 주거형태와 의사소통 등 천지개벽한 정보의 물결로 정이 메말라가고 있으며 오천년 이어온 한민족의 삶터에 전운戰雲이 감도는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송조돈종崇祖敦宗의 문화도 퇴색退色하고 종친 간 소식과 주소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체계 있게 자료를 수집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파별派別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종사宗事 십계명十誡命에 종사宗事는송조보본崇祖報本과 화친돈목和親敦睦의 대본大本을 근간根幹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境遇에도 화합和合에 위배違背되거나, 시뻘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며, 종사宗事는 문중門中에 봉사奉仕하는 소명의식召命意識이 제일第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가르침보다 설득력이 있어 이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종회를 운영運營하고자 하오니 종친여러분의 적극적積極的인 협조協助를 당부當付합니다.

우리 종친회가 1955년 어려운 시대에 창립하여 환갑을 넘기고 종보宗報 22호를 발간發刊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기까지는 조상祖上의 덕목德目を 보고 배우며 깨어나도록 탐구探究와 보급普及에 각고刻苦의 노력努力을 기울이신 역대 임원의 덕택입니다. 이에 대해 한없는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회사 경영經營과 선교활동宣敎活動 등 바쁘신 가운데 10여 년에 걸쳐 헌신봉사獻身奉仕한 정광훈鄭光勳 전임 대종회 회장님에 대하여 종친 여러분과 함께 존경과 감사드리며 신임 정철준鄭哲俊 회장님이 회사경영에 바쁘심에도 열화와 같은 종친의 성원에 보답코자 용단勇斷을 내려 회장직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환영하며 그동안의 사회적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우리 종친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류역사는 먹이가 있는 곳에 적賊이 있고 영광榮光이 있는 곳에는 상처傷處가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종사宗事에는 오직 봉사奉仕와 헌신獻身으로 종위선양宗威宣揚하고 화친돈목和親敦睦하여 종회발전에 기여寄與하는 일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정영주 고문님과 기현 부회장, 병선 간사, 대종회 삼동 총무국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종친회의 운영 역시나 회원의 정성과 회비會費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입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고,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俗談처럼 금년에도 종친 모두가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도와주시면 커다란 보탬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가一家는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 했습니다, 부덕不德한 이 사람이 혹간或間 일일이 알아보지 못하거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도와 편달 바라며 저 또한 종회발전을 위한 종친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찬을 마련하였으니 다정한 담소談笑를 나누시며 기쁨을 같이하시고 100세 시대에 더욱 강녕康寧하시고 가정家庭과 이웃이 함께 화목和睦하시기 바랍니다. 감사感謝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호남종친회장 정우화

羅州鄭氏湖南宗親會 任員 名單

♠ 第8代 顧問 ■ 諮問委員 ■ 任員名單 ♠

區 分	名	摘要
♠顧問	君燮, 曷浩, 六衍, 炳柱, 炳坤, 榮柱, 士勉, 炳淶, 吉會, 承燮, 遇光, 楠, 昌環, 哲俊	14名
♠諮問	遇杰, 遇昌, 永春, 炳南, 曷鈺, 炳鉉, 守日, 鍾仁	8名
♠任員	<p>■ 會長：遇華</p> <p>■ 副會長 奇鉉, 正男, 坂勉, 曷海, 炳官, 日柱, 正衍, 孝衍, 泰衍, 乃赫, 鍾根, 三童</p> <p>〈新任〉 遇鍊(동강), 遇亨, 遇千, 德鎭, 琮勉(노안) 点勉, 孝勉(나주), 炳洙, 炳毅, 光寅</p> <p>■ 監事：炳龍, 茂三</p> <p>■ 總務局長：宗會</p> <p>■ 財務局長：在石</p>	27名

湖南宗親會 會費 및 誠金 納付內譯(2015년도)

적요	회비	성금	기타	유적지	계	적요
정군섭		100,000		100,000	200,000	고문
정길희				100,000	100,000	고문
정남		50,000	100,000		150,000	고문
정병록		100,000			100,000	고문
정병주		150,000		100,000	250,000	고문
정병호		*100,000	*마감후	납부	100,000	고문
정영주		100,000		100,000	200,000	고문
정우광		50,000			50,000	고문
정육년		100,000		50,000	150,000	고문
정창환		100,000			100,000	고문
정철준			740,000	300,000	1,040,000	대중회장
정병옥	100,000	50,000			150,000	자문위원
정병현	*100,000	50,000	*마감후	50,000	200,000	자문위원
정수일	100,000				100,000	자문위원
정영춘	100,000	100,000			200,000	자문위원
정우걸	100,000	100,000			200,000	자문위원
정우창	100,000				100,000	자문위원
정종인	100,000	100,000			200,000	자문위원
정우화	500,000	1,000,000		500,000	2,000,000	회장
정기현	200,000	100,000		100,000	400,000	부회장
정내혁	200,000	100,000			300,000	부회장
정무삼		100,000			100,000	감사
정병수	200,000	50,000	200,000	*14년분	450,000	부회장
정병의			200,000	*14년분	200,000	부회장
정병용		50,000			50,000	감사
정병해	200,000				200,000	부회장
정삼동	200,000				200,000	부회장
정우연	200,000				200,000	부회장
정우천	200,000				200,000	부회장
정우형	200,000	50,000			250,000	부회장
정일주	200,000				200,000	부회장
정점면	200,000				200,000	부회장
정정남	200,000			100,000	300,000	부회장
정종면	200,000	50,000			250,000	부회장

정태연	200,000				200,000	부회장
정관면	200,000	50,000			250,000	부회장
정효연	200,000		100,000		300,000	부회장
계	4,100,000	2,700,000	1,340,000	1,500,000	9,640,000	

湖南宗親會 理事 會費 및 誠金 內譯

성 명	회 비	성 금	기 타	유적지	계	적 요
참석비				410,000	410,000	참석회비
정병효	20,000				20,000	이사
정성진				50,000	50,000	모친
정길남	20,000				20,000	이사
정강무	20,000				20,000	이사
정강연	20,000				20,000	이사
정공회		100,000			100,000	이사
정광면		50,000			50,000	이사
정광섭	20,000				20,000	이사
정광인	200,000	50,000			250,000	이사
정광현		50,000			50,000	이사
정기면	20,000				20,000	이사
정기풍	100,000	100,000		50,000	250,000	이사
정길원	20,000				20,000	이사
정내연	40,000				40,000	이사
정노석	30,000	200,000		50,000	280,000	이사
정대우	20,000				20,000	이사
정덕균	20,000				20,000	이사
정무인		50,000			50,000	이사
정무중		100,000			100,000	이사
정병거	30,000		20,000		50,000	이사
정병남	20,000				20,000	이사
정병두	20,000	50,000			70,000	이사
정병삼	20,000				20,000	이사
정병선	20,000	50,000			70,000	북구

정병선	20,000	50,000			70,000	광산구
정병수				100,000	100,000	합평균
정병원	20,000				20,000	이사
정병채	20,000				20,000	이사
정병출		150,000	50,000		200,000	이사
정병훈	20,000				20,000	이사
정시면	20,000				20,000	이사
정 연	50,000				50,000	이사
정연순				50,000	50,000	이사
정영배	20,000				20,000	이사
정옥면	40,000				40,000	이사
정용귀	20,000				20,000	이사
정용연	40,000	50,000			90,000	이사
정우상		50,000			50,000	이사
정우선		100,000		50,000	150,000	이사
정우열	30,000				30,000	이사
정우영		50,000			50,000	이사
정우현	20,000	100,000			120,000	이사
정 윤		50,000			50,000	이사
정윤면	20,000				20,000	이사
정인면	30,000				30,000	이사
정정연	30,000				30,000	이사
정지선	20,000				20,000	이사
정한면	20,000				20,000	이사
정형면	20,000	20,000			40,000	이사
정홍면		50,000	50,000		100,000	이사
계	1,120,000	1,470,000	120,000	760,000	3,470,000	
합 계	5,220,000	4,170,000	1,460,000	2,260,000	13,110,000	

羅州鄭氏 大護軍公派 宗親會 春享祭

세덕사 춘향제世德祠 春享祭 : 2015년 4월 13일(음 2월 25일) 오전 11시에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석지에 위치한 세덕사에 전국 경향각지에서 40여 종친들이 참여하여 시조 고려군기감판사공 정해始祖 高麗軍器監判事公 鄭諧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예빈경공 정종산禮賓卿公 鄭宗産,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공 정송수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公 鄭松壽, 금자광록대부 설재 정가신金紫光祿大夫 雪齋 鄭可臣, 대호군공 정전大護軍公 鄭佺, 대광보국첨의공 정홍진大匡輔國都僉議公 鄭弘振, 자현대부 예조판서 빙헌공 정국資憲大夫 禮曹判書 氷軒公 鄭菊, 7위의 제향祭享을 초헌初獻 : 정봉속, 아헌亞獻 : 정문수, 종헌終獻 : 정재연, 진설陳設 : 정종철, 집례執禮 : 정상균, 축祝 : 정종인, 봉향奉香 : 정덕수, 봉로奉爐 : 정종근, 사준司罇 : 정행호, 봉작奉爵 : 정태연, 전작奠爵 : 정성춘, 찬인贊引 : 정강민, 제관祭官들과 참례원參禮員들이 춘향제春享祭를 모셨다.

羅州鄭氏 少尹公派 金鞍洞(諱諶, 詳) 門中 宗親會

나주 노안 금안동 문중 정기총회가 종친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으며 2015년도 결산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많은 토의사항 등으로 진행하여 우리 문중의 나주정씨 본세거지임을 자긍심으로 삼아 위대한 선조님의 업적과 교훈을 본받아 우리 종친 후손들이 돈목, 애족, 화합하고 빛나는 문중으로 만들자고 다짐하였다.

1. 일시 : 2016년 2월 28일 (토) 오전 10시
2. 장소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649 설재서원 내 영모재
3. 안건 가) 2015년도 결산보고(회의자료)
나) 2016년도 예산심의(회의자료)
다) 문사 토의 사항
 - ① 백동, 곶실, 장사 돈목 제각 전기판넬 설치의 건
 - ② 백동 관리소 지붕 보수 의 건
 - ③ 장사 소운공 묘소 들레석 설치의 건
 - ④ 각 제각 주변 나무 정리의 건
 - ⑤ 대여금 및 이자 회수의 건(2천만원, 정문일)
 - ⑥ 이창동 토지매입의 건(환지매입)

라) 기타 문사 토의사항

임원 현황

문장門長 : 길희吉會 도유사都有司 : 인면寅勉, 윤면允勉 유사有司 : 우병遇柄, 병욱昺郁

감사監事 : 기현奇鉉, 병환炳煥 총무總務 : 종회宗會 재무財務 : 수남秀男

운영위원장運營委員長 : 사면士勉

운영위원運營委員 : 군섭君燮, 병호昺浩, 우화遇華, 우창遇昌

2015년도 제39회

羅州鄭氏 指諭公(諱億)派 宗親會 定期總會

일시 : 을미년 음 3. 10일(2015.4.28.)

장소 :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송충동 세모각

참석 : 34명

1. 先祖時祭奉享 : 응곡-휘 億 再振, 棋, 維新, 輓., 薰
송충동-휘 之雅, 益宗, 貞夫人 商山金氏

제 관

초헌관 : 진상(작면)-남양주

아헌관 : 종기-서울

종헌관 : 성태-서울

진설관 : 주연-엄다 영화정

집례 : 영춘-청계 서호정

축 : 병현-월야 내세

집사 : 용연-내세 대우-송춘 일범-외세 성태-서울

산신제 : 일성-외세

축 : 병선-송춘

설향유사 : 병선-엄다 송춘

2. 會議 案件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계획

기타사항 : 오산사 수리 및 중건

羅州鄭氏 滄洲公(諱詳)派 宗親會

나주정씨 창주공파 종친회 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2015년도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과 토의사항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창주정사 입구에 표지석을 보고 찾아오는 탐방객이 많아서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하며 나주정씨 창주공파의 자긍심으로 위대한 선조님의 업적과 교훈을 본받아 종친들의 돈목, 애족, 화합하는 빛나는 문중으로 만들자고 결의하였다.

1. 일시 : 2015. 5. 3(일). 10:00~16:00
2. 장소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후석(滄洲亭)
3. 안건
 - 가) 2015년도 결산보고
 - 나) 2016년도 예산심의
 - 다) 창주정사 관리보존 방향토의
 - 라) 기타 종회 발전 방향토의
 - ① 자금확대의 건
 - ② 종친찾기 및 창주공 제향 참여의 건
 - ③ 창주공파종친회는 매년 창주공 시제 시(음 3.3.)에 병행하고 2년 단위로 창주정사에서 시행기로 함.

[임원 현황]

宗會長 : 士勉(010-8618-3477)

副會長 : 公會(010-), 吉會(010-7325-0913), 寅勉(010-5684-6664)

監 事 : 遇杰(010-4611-0809)

總 務 : 遇昌(010-3616-4831) 財 務 : 奇鉉(010-3627-6578)

2016년도

羅州鄭氏 禮賓寺 參奉公(諱靚)派 平池門中

나주정씨 예빈시 참봉공파 평지문중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전국 각처의 종원 51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 일시 : 2016. 2. 20. 10:00-13:00

2.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무진회관

3. 안 건

가) 보고 및 심의사항

- ① 2016년도 정기총회
- ②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심의
- ③ 2015년도 선조묘소에 화환증정으로 참배보고

나) 임원선출(전원 연임)

문중대표 : 정 영 주

총무재무 : 정 강 연

감 사 : 정 국 면

문산관리 : 정 광 열

다) 대중회 및 호남종친회 행사 참여 독려

羅州鄭氏 思義堂公(諱諺祖)派 宗親會

나주정씨 사의당공(휘언조)파 문중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1. 시제 및 정기총회

일시 : 2015. 10. 15

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1리

안건 : 가) 보고사항 및 심의 내용

- ① 2015년도 정기총회
- ② 2015년도 결산 및 예산 심의
- ③ 2015년도 정친 참여의 건
- ④ 기타사항

2. 신임 임원 선출

회장 : 鉉奎 (010-2494-6920)

총무 : 鉉夏 (010-7999-3224)

羅州鄭氏 聞慶·尙州 宗親會

나주정씨 문경·상주 종친회 문중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1. 시제 및 정기총회

일시 : 매년 3. 1 시제일 및 정기총회

장소 : 경북 상주시 내노병곡 장판산

2. 임원 명단

회장 : 정승길(010-5360-6845, 경북 상주시 낙양8길 34)

총무 : 정동식(010-8563-4424)

2015년도 제93회

羅州鄭氏 海隱公(諱以夏)派 宗親會 定期總會

1. 고성현감 해은 나주정공 (휘이하)유허비 건립 제막식

일시 : 2015. 10.15

장소 :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삼정산 영모재

1) 유허비 제막

2) 헌화- 대종회장 정철준 지유공파 회장 정주연

 매헌공파 대표 정진상 월탄공파 대표 정병열

 월봉공파 대표 정길연

3) 시상-(건립 공로자)

 정주연-전 서울종친회장/ 현 지유공파 종친회장

 정송학-전 서울시 광진구청장/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석감사

 정철준- 주식회사 한국건설회장/ 대종회장

 정영무-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박사

4) 기념사-고문 정병선

5) 격려사-호종회장 정우화

6) 비문낭독-회장 정영춘

7) 사회-월탄공파대표 정병열

2. 시제 제향

1) 해은공 以下 六世孫

2) 제관

 초헌관-정송학

 아헌관-정오성

 종헌관-정영무

 집 레-정주연

 사 축-정영연

 집사 정내혁 정덕균

3. 회의

1) 회장인사

2) 회의 안건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계획

 기타사항

2015년도 제75회

羅州鄭氏 牛山公(諱紳)派 宗親會 定期總會

일시 : 2015. 10. 16

장소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서호정 영모각

1. 時祭 祭享

우산공 휘 신

내헌공 휘 시호

양주공 휘 세원

석천공 휘 진첩(태정)

제 관

초헌관 병두

아헌관 병표

종헌관 영배

축 관 병열

집례 영춘

집사 경식 내혁

2. 會議 案件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계획

기타사항

1) 이장(移葬)

양주공 휘 세원 석천공 휘 진첩 부자 몽탄면 월산에서 청계면 서호리 우두산 큰별안 부친 휘 시호 묘 아래

2) 첨부(添附) 위 두분 행장

2015년도 제3회

羅州鄭氏 滄軒公(諱世仁)派 宗親會 定期總會

일시 : 2015. 4. 20.

장소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서호정 우두산 영모각

1. 時祭 祭享

창헌공 휘 세인

아들-徽자2 손-中자4 증손-光자6 현손-默자10 5세손-鎭자15

6세손-漢자16 7세손-遇자20(계74)

제관

초헌관 : 남면

아헌관 : 관윤

종헌관 : 성헌

집례 : 영춘

축 : 병표

집사 : 내혁 은연

설향유사 내혁

2. 회의 안건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계획 유허비 건립

기타사항

2016년도 제15회

羅州鄭氏 咸平郡宗親會 定期總會

일시 : 2016년 2월 15일

장소 : 함평군 월야면 영민정

참석회원 : 43명

회원 43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안건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계획

기타사항

임원 고 문-병용 종인 정조 일성

회 장-병선

부회장-병순 병창 병수 병대 경일

총 무-상규

재 무-윤연

羅州鄭氏 洞江宗親會

설립목적 : 동강면에 거주하는 나주정씨 종친간의 친목 도모

1대회장 : 정창환(1998년 7월~2003년 1월)

2대회장 : 정판면(2003년 1월~2015년 1월)

3대회장 : 정광인(2015년 1월~)

지금까지 추진사항

- 시중동 송묘단 제례 년 1회(2010년 - 현재까지)
- 송묘단 정화작업 년 3회(잡초제거 및 나무전정 등)
- 정기총회 년 2회(구정 및 추석 다음날)
- 가족야유회 년 1회

고 문 : 정창환, 정영환, 정정길

회 장 : 정광인

부회장 : 정우연, 정상기

회 원 : 정귀연, 정팔연, 정용부, 정판면, 정상연, 정주연,
정재연, 정병권, 정광남, 정광석, 정찬면, 정병진
정창면, 정부익, 정무용, 정종안, 정정연, 정종연,
정장원, 정오일, 정광형, 정광선

특별회원 : 정항면

여성회원 : 정금순, 정성자

회장 소개

주소 :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나주서부로 1820-20

성명 : 鄭光仁(炳字, 010-3619-9762)

생년월일 : 1955년 6월 17일생

학력 :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1974년 4월 15일 나주군청 지방공무원 입사

2014년 4월 15일 명예퇴직(지방행정사무관)

수상경력

나주군수 표창 3회, 전라남도지사 표창2회, 장관표창 3회

녹조근정훈장 1회

족보

나주정씨 대동보 권지6 - 949페이지(27대손)

<http://www.najujeong.com/aro243/njhome/nj02/ch134/naju13-218.htm>

羅州鄭氏 光州靑壯年會 定期總會

나주정씨 광주청장년회 정기총회를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1. 일시 : 2016년 2월 24일 (수) 오후 6시 30분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조선한정식 내
3. 안건 : 가) 청장년회 재결집에 관한 건
나) 광주청장년회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
다) 대중회와 호남중친회에 협조사항 등
라) 기타 토의 사항

임원 현황

會 長	鄭茂重	HP 011-614-7890
副會長	鄭茂烈	HP 010-3649-6644
總,財務	鄭相賢	HP 010-3627-8145
監 事	鄭茂成	HP 010-5603-6514

光州靑壯年會 歷代 任員陣 現況

2016. 04. 9. 현재

대	기 간	회 장	부회장	감 사	총 무(1, 2)		재 무	비 고(고문)
1	1985.2.	병문	원면	득주/병설/ 재룡/부웅	경주		/	정웅/정우혁/ 정병록/정태연
	1986.9.12							
2	1986.9.13	근길	재룡/ 경주	원면/병설/ 부웅	기섭		/	정우혁/정병선 /정병록
	1988.9.9							
3	1988.9.10	병설	경주/ 재룡	원면/호룡/ 우민	무삼		기섭	정웅/정원면/정병록
	1990.9.9							
4	1990.9.10	경주	육열/ 원면	웅태/영대	무성		무성	(총무+재무 겸)
	1992.10.9							
5	1992.10.10	육열	호룡/ 웅태	영대/내석/ 무삼/석우	무성	자연	기섭	정병문/정근길/ 정병설/정경주
	1996.10.9							
6	1996.10.10	웅태	본연/ 효면	무삼	무열		무성	(*웅태 전 회장 고인)
	1997.10.9							
7	1997.10.10	효면	우민,영대 무인,병의	무성/총회:	무인	상현	무삼	
	2003.2.9			무삼: 2001.11.12.		99.7.1	총회	2000.12.26. 재무인수인계
8	2003.2.10	무인	광섭/ 병열	무삼	상현	총회	총회	2005.10.01.~ (총무+재무 겸)
	2005.12.31				5.9.30			
9	2006.1.1.	삼동	기현/ 병학	무삼	총회		총회	(총무+재무 겸)
	2010.1.11							
10	2010.1.12	기현	우천	총회	무성		무성	(총무+재무 겸)
	2014.12.16			무성	총회		총회	총무교체 2010.10. 14.~2014.12.16.
11	2014.12.17.	무중	무열	무성	상현			

主要 祠宇 享祀日

祠宇名 設壇	所在地	配享先祖	世	祭享日
	나주시 노안면 영안길 60	시조, 2세, 3세		
雪齋書院	나주시 노안면 영안길 60	문정공설재鄭可臣선생, 경무공鄭軾선생, 암헌공申樞선생, 일헌공諱先生, 창주공詳선생, 경원부사공如麟선생, 즉우당공瀾선생, 삼불의헌공初선생, 목재공訥선생	4 可臣 9 軾 13 諱, 詳, 14 如麟 15 瀾 7 初 13 訥 - 申樞	음 9월25일 (완정일)
崇慕壇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388-1		시조, 2세, 3세	11월 첫주 토
鰲山祠	함평군 월야면 외세길 32-10	문정공설재鄭可臣선생, 단종절신기재공鄭薰선생, 임란충신에죽헌공鄭鷹선생, 애송헌공鄭鴻선생, 고정공鄭縉선생, 송계공鄭繪선생, 월암공鄭氏秀선생	4 可臣 10 薰 15 鷹, 鴻 16 縉, 繪, 民秀	음 3월1일 (완정일)
世德祠	함평군 나산면 석지길 55	군기감관사공鄭諱, 예빈정공鄭宗産, 은청광록대부추밀원부사공鄭松壽, 금자광록대부문정공설재鄭可臣, 대호군공鄭俊, 대광보국도첨의공鄭弘振, 자헌대부예조판서빙헌공鄭菊	始祖 2 宗産 3 松壽 4 可臣 5 俊 6 弘振 10 菊	음 2월25일 (완정일)
月川祠 雙溪亭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02-6 나주시 노안면 금안2길96-6	월탄공鄭麒壽선생, 월봉공鄭鳳壽선생	15 麒壽 15 鳳壽 4 可臣	- 대동계 음 4월20일 (완정일)

少尹公(諱佶)派 主要 時祭日

祠宇名	所在地	配享先祖	世, 諱	祭享日
長沙(高山齋)	나주시 나주서부로 45	奉常大夫行開城少尹贈資憲大夫吏曹判書 單位	5 佶	음 10월 7일
德林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朝散大夫行 寶城郡守贈資憲大夫吏曹判書 單位	6 文振	음 10월 8일
雄谷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석북만길 151-29	永嘉郡夫人權氏 單位	5 佶配	음 10월 10일
		中直大夫 泰仁縣監配合園縣夫人文氏合位	9 略	
		進士 合位	18 彦復	
		單位	19 垞	
		合位	19 埧	
		三合位	20 明運	
月淸洞 (敦睦洞)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산동 2	朝散大夫吏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府君配淑夫人金氏合位	13 謹	음 3월10일 (春祭)
		將仕郎公府君配位令人金氏陳氏三合位	14 漢	
		進士配位宜人高氏合位	15 渾	
		竹友堂配淑人李氏合位	15 瀾	
		成均進士配位宜人李氏合位	15 洙	
		通政大夫兵曹參議配淑夫人柳氏李氏三合位	16 震瑞	
		配柳氏合位	16 麟瑞	
		配李氏合位	17 備	
		配梁氏合位	17 伸	
		配趙氏合位	19 錫	
		配文氏 單位 舊祭閣	17 備	
		通訓大夫司憲府監察	21 基杓	
淑夫人尹氏合位 舊祭閣				


		備配河東鄭氏單位	17 備		
		千運配劉氏合位	20 千運		
		翼瑞配金氏合位	16 翼瑞		
		休配河東鄭氏合位	17 休		
		泰運成均進士配宜人李氏合位	20 泰運		
		禦侮將軍兼宣傳官配淑人安東權氏案山合位	16 之中		
		道明配金氏合位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산동 2		文振配金陵郡夫人金氏 單位	6 文振配	음 10월 10일	
		軾配 貞夫人閔氏 單位 案山	9 軾配		
		謹朝散大夫吏曹正郎兼 春秋館記注官府君配淑夫人金氏合位 案山	13 謹		
		通政大夫知川成事嘉政大夫兵曹參判府君配貞夫人吳氏合位 舊祭閣	7 有		
		承賢配令人姜氏 單位	10 承賢		
福同(영안)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37-1	初資憲大夫戶曹判書配貞夫人庚氏合位	7 初	음 10월 13일	
		克從朝散大夫行和順縣監配淑夫人崔氏合位	8 克從		
大五(白洞)	나주시 다시면 백동길 3-93	碩弼通訓大夫行茂長縣監配淑夫人房氏 合位	10 碩弼	음 3월 3일 (春祭)	
		詳通政大夫戶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府君配淑夫人李氏合位	13 詳		
		道中配張氏合位	18 道中		
		垞配申氏 單位	19 垞		
		通德郎府君配恭人坡州廉氏合位	14 如龍		
		嘉義大夫行慶源都護府使公 配貞夫人晉州柳氏錦城羅氏 三合位	14 如麟		
		通德郎府君配恭人光山李氏光山金氏三合位	14 如鳳		
		從仕郎延恩殿參奉府君配宜人豐山洪氏合位	14 如龜		
		學生府君配孺人羅州羅氏合位	15 渙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府君配端人興德張氏光山李氏三合位	15 洋		
		朝散大夫行軍資監府君配令人咸平李氏合位	15 沃		
		嘉義大夫行同知中樞府事府君配貞夫人蔚山金氏合位	15 濊		
		通訓大夫掌樂院正府君配淑夫人咸平李氏合位	15 潑		
		朝散大夫行漢城庶尹府君配淑夫人長澤高氏合位	15 潑		
		通德郎府君配宜人南原楊氏合位	16 寅佑		
		進勇校尉忠武衛副司勇行訓練主簿府君配令人驪興閔氏合位	16 寅俛		
		通德郎府君配恭人驪興閔氏合位	16 寅倝		
		通德郎府君配恭人海南金氏合位	16 再瑞		
		學生府君配孺人靈光金氏恭人朴氏三合位	16 夏瑞		
		宜人咸陽朴氏單位	17 琥의 配位		
	贈通政大夫府君配淑夫人濟州梁氏合位	18 彥相			
	成均館進士府君配宜人慶州鄭氏合位	18 彥博			
	學生府君配孺人慶州鄭氏合位	19 岫(寅伯曾孫)			
	學生府君配孺人靈山辛氏合位	19 岫(寅叔曾孫)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府君配淑夫人仁同張氏合位	20 煥喆(寅伯高孫)			
	望祭		可臣金紫光祿大夫文靖公雪齋先生府君配陰平郡夫人安氏 合位	4 可臣	음 10월 15일
			時維孟冬霜露既降世道蒼黃未搜省掃千里瞻望英靈陟降俊然如左遠違報本禮不敢忘謹以清酌庶羞薦薦一事尚饗		
自新 保功將軍雄武侍衛司大護軍資憲大夫吏曹判書府君軾 正憲大夫兵曹判書中樞府事兼五衛都總府總官府君 單位			8 自新 9 軾		
나주시 다시면 백동길 3-93		承賢朝散大夫司憲府監察府君配令人河氏瑞山鄭氏三合位	10 承賢		
		觀啓功郎司瞻寺直長府君配朴氏合位	11 觀		
		念祖宣務郎司瞻寺主簿府君配宜人李氏合位	12 念祖		
		詳通政大夫戶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府君配淑夫人李氏合位	13 詳		
		道中單位	18 道中		
		道中配張氏單位	18 道中		
		垞配申氏 單位	19 垞		

大五山神祭는自新을 爲主로 쓸 것

羅州鄭氏 地域別宗親會 目錄

宗親會 名稱	代 表	連 絡 處	備 考
湖南宗親會	鄭遇華	010-2052-4190	062-366-4669
서울宗親會	鄭大圭	010-6341-5885	
咸平宗親會	炳善	010-9887-2624	
大護軍派宗親會	鍾仁	016-644-8288	061-322-8282
少尹公金鞍洞諱詳門中	吉會	010-7325-0913	
指諭公派宗親會	珠衍	010-7651-7252	
秋坡公派宗親會	守日	010-3949-8877	
默齋公派宗親會	炳勳	016-462-3903	062-944-0903
逸軒公派宗親會	吉勉	010-3783-8254	
滄洲公派宗親會	士勉	011-9618-3477	
禮賓寺參奉公派宗親會	榮柱	010-4622-0937	
聞慶尙州宗親會	勝吉	010-5360-6845	
海隱公派宗親會	承燮	010-4618-5818	
咸平月也宗親會	旻一	011-645-1286	
牛山公派宗親會	永春	010-5648-3739	
滄軒公派一身宗親會	炳杓	010-8623-2312	
同江面宗親會	光仁	010-3619-9762	
思義堂公派宗親會	鉉奎	010-2494-6920	
扶餘林川公派宗親會	容穆	010-8822-7226	010-7253-2272
同江鳳洞宗親會	坂勉	010-4199-5537	
月灘公派宗親會	永春	010-5648-3739	
月峰公派宗親會	炳善	010-9887-2624	
水使公宗親會	俊植	010-3732-0327	
光州靑壯年會	戊重	011-614-7890	

※명단에서 누락된 종친회에서는 호남종친회(062-366-4669)로 연락 바랍니다.



편집후기


*종보 창간호를 엇그제 세상에 내놓은 것 같은데, 벌써 제2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종친 여러분의 애종심愛宗心과 송조심崇祖心에 따른 종위선양宗威宣揚 사명감에서, 종보宗報 편집에 수고하신 편집위원과 옥고玉稿를 보내주시고 종보 성금을 기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종친님들 덕분에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종무宗務와 문사門事 유공자 공적사례, 효행사례, 선행사례, 성공사례, 자녀교육, 건강생활, 법률상식, 일상생활에 유익한 내용의 원고가 다양하게 수록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여가를 선용하여 종보를 애독하여 우리의 뿌리를 알고, 선조님들의 훌륭한 정신과 업적, 선덕善德과 유훈遺訓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는 한 핏줄 한 자손, 일가一家는 백대지친百代至親이라는 것을 머릿속 깊이 심어주고, 송조崇祖 효제孝悌, 애족愛族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또한 훌륭한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종보 발행은 종친님들의 정성어린 성금과 광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종보재정宗報財政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종보 발간비를 마련하는 데 종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우걸, 정병선, 정우화, 정대규, 정기현, 정상동,



원고를 기다립니다

1. 종친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제의
2. 각 종파의 위인 열사에 대한 사적
3. 오정품鄭과 얽힌 내 고장의 전설
4. 기타 수필, 시, 단편, 효행, 선행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제출시기 : 매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수시접수

※ 특히 앞으로 羅州鄭氏를 이끌고 나아갈 장학금 수혜자 등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소 : 500-863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168-1(유동)

나주정씨대중회 종보 편집실

전화 : 062-366-4669

<http://www.najujeong.com>

나주정씨종보(제23호)

서기 2016년 병신 4월 9일 발행

發行處

나주정씨대중회

<http://www.najujeong.com>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168-1 2층(유동) 062-366-4669

發行人

대중회장 정철준

編輯委員長

발전연구위원장 정우걸

編輯主幹

발전연구위원회 간사 정병선

編輯委員

호남종친회장 정우화

서울종친회장 정대규

발전연구위원 정기현

대중회 총무국장 정삼동

指導委員

전 발전연구위원장 정병록 정길희 정육연 정영춘

連絡處

서울종친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70 평안빌딩 2층 ☎ 02-712-2246

호남종친회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168-1 2층(유동) ☎ 062-366-4669

印刷處

예원출판사

6148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15(남동 137)

전화 062-222-7848, Fax 062-443-0860

mobile 010-2747-7848

고객상담실 070-7745-7848

<http://www.yewonpub.com>

쇼핑몰 www.yewonpub.co.kr

E-mail : kssyw@hanmail.net